



하나증권

# 2026

## 사업테마 가이드

하나증권 리서치센터 미래사업팀 · 채널전략팀



하나증권

# 목차

## 1. 우주

① 인공위성	2
② 위성운영 및 서비스	4
③ 특수소재	6
④ 발사체/발사 서비스	8

## 2. 로봇

① 산업용 로봇(물류)	10
② 수술용 로봇	12
③ 휴머노이드 로봇	14
④ 로봇 부품	16

## 3. IT

① 반도체/HBM	18
② 기판	20
③ 폴더블	22

## 4. 전략자산

① ESS	24
② 희토류	26
③ 방산	28

## 5. 소비자재

① 중국소비	30
② Fandom 소비	32
③ Trendy	34

## 6. 정부정책

① 인공지능(AI)	36
② 산업재편	38
③ 코스닥	40

## 7. 트럼프

① 정유	42
② 스테이블코인	44
③ 원자력	46

## 8. 원자재

① 금	48
② 구리	50
③ 리튬	52

## 우주 인공위성

### 우주 주권의 핵심과 제조 자립의 핵심은 인공위성

#### check Point

- 저궤도 위성 기술 발전과 발사 비용 하락으로 위성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
- 이로 인해 더 이상 인공위성은 국가 전유물이 아닌 통신·데이터·안보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 통신·지구관측·항법·감시 분야에서 활용이 확대되며 위성 수 증가 자체가 추가 수요를 창출하는 구조를 형성
- 다수 위성을 운용하는 군집 체제로 전환되며 우주를 넘어 디지털 인프라 산업으로 거듭나는 중

#### ✓ 정의

인공위성은 지구 또는 다른 천체의 궤도를 돌며 통신, 관측, 항법, 과학 임무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된 우주 시스템이다. 용도에 따라 통신위성, 지구관측위성, 항법위성, 군사위성 등으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하나의 위성이 여러 임무를 수행하는 다목적 위성도 증가하고 있다. 궤도 기준으로는 정지궤도(GEO), 중궤도(MEO), 저궤도(LEO)로 나뉘며, 특히 LEO 위성은 낮은 지연시간과 대량 배치 가능성으로 산업 전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인공위성 산업은 단순 하드웨어 제작을 넘어, 전력·열·통신·자세제어 등 복합 시스템 설계 능력과 장기간 운용 안정성이 동시에 요구되는 고난도 산업이다. 또한 위성 발사 이후에는 수년에서 수십 년간 궤도상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초기 설계와 부품 신뢰성이 사업 성패를 좌우하는 구조를 가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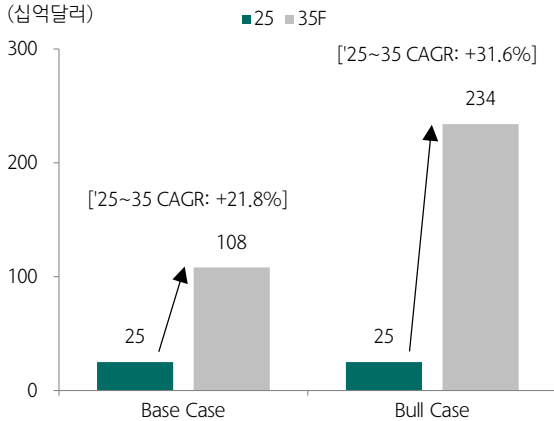
#### ✓ 현황

글로벌 인공위성 발사 수와 운용 대수는 저궤도 위성망 구축을 중심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신 위성뿐 아니라, 고해상도 지구관측 위성, 기상·환경 감시 위성, 국방·안보 목적 위성까지 수요가 다변화되며 위성 활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특히 위성 데이터는 농업, 물류, 보험, 에너지, 국방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의사결정 고도화 수단으로 활용되며, 위성은 단순 관측 장비를 넘어 데이터 생산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인공위성 산업에서는 소형화와 표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소형 위성 플랫폼을 기반으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제조 단가는 낮아지고, 개발 기간은 단축되고 있다. 이는 위성 교체 주기를 단축시키고, 기술 발전 속도를 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동시에 위성 수 증가에 따른 우주 혼잡과 충돌 위험, 궤도 관리 문제도 부각되며, 위성 관제·운영 기술의 중요성 역시 빠르게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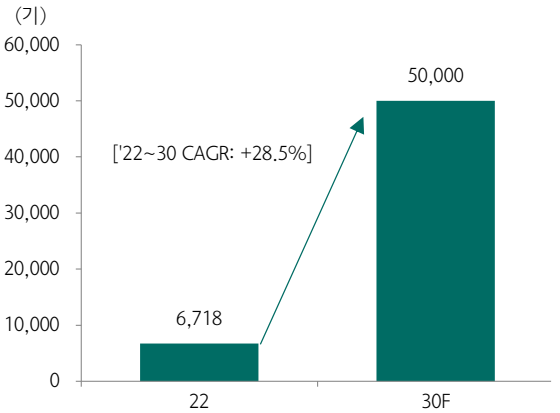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인공위성 산업은 발사체, 지상국, 데이터 서비스와 긴밀히 결합된 종합 우주 인프라 산업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통신·관측·안보 영역에서 위성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인공위성은 국가와 기업 모두에게 대체 불가능한 전략 자산으로 인식될 것이다. 인공위성은 더 이상 우주 기술의 상징이 아니라, 지상 산업과 직접 연결되는 핵심 디지털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

## 인공위성 시장 전망



자료: Goldman Sachs Research, 하나증권

## 전세계 저궤도 위성 수 추이 및 전망



자료: 업계자료, 하나증권

## 인공위성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세트렉아이	099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형 위성 본체 설계·제작 역량을 보유한 국내 저궤도 위성 시대 대표 플랫폼 사업자</li> <li>정부·민수 프로젝트 레퍼런스 축적, 위성 제조 → 운영 → 영상·데이터 서비스로 확장 가능</li> </ul>
제노코	361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성·항공우주용 RF/전자 핵심 부품 공급업체로 방산·우주 양산업에서 안정적인 수주 기반 보유</li> <li>저궤도 위성 수 증가에 따라 반복 수요가 발생하는 구조적 성장 사업 영위</li> </ul>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478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소형 위성 체계와 지구관측 영상 데이터 확보</li> <li>'위성 제작+데이터 활용' 모델 지향 위성 데이터의 민간 활용 확대 잠재력</li> </ul>
루미르	474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성 탑재체·광학 센서에 특화된 기술 기업으로 고부가 부품 국산화 포지션 확보</li> <li>위성 성능 고도화 트렌드 속에서 기술 장벽이 높은 고부가 부품 영역에 집중</li> </ul>
AP위성	211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목적 실용위성 사업 등 국가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여 위성 본체 체계 개발</li> <li>위성통신 단말기 부문에서는 UAE 이동위성통신업체에 단독 공급 및 유럽, 호주, 아시아 지역에 공급 중</li> </ul>

자료: 하나증권

우주

## 위성운영 및 서비스

### 소유에서 구독으로 비즈니스 모델의 시선 변화

#### check Point

- 저궤도 위성의 대량 배치가 본격화되며 통신, 데이터, 분석, 관제 등 운영·서비스 영역이 산업 가치가 확대됨
- 특히 저궤도 위성은 수명이 짧고 수량이 많아 지속적인 운영, 관제, 교체가 필수적
- 위성 자체보다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가”가 경쟁력의 핵심
- 위성운영은 단발 프로젝트가 아닌 반복적이고 누적되는 수익 구조로 변화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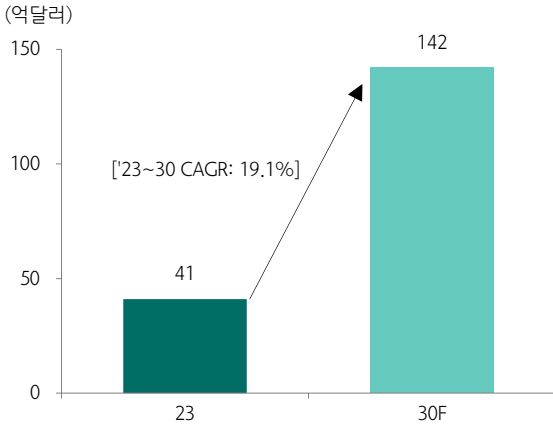
#### ✓ 정의

위성운영 및 서비스는 발사 이후 위성의 전 주기 운영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위성 관제, 궤도 유지, 상태 모니터링, 데이터 수신·처리, 통신 서비스 제공, 지상국 운영, 데이터 분석 및 응용 서비스까지 포함한다. 저궤도 위성 환경에서는 수백~수천 기의 위성을 동시에 관리해야 하므로 자동화된 관제 기술, 네트워크 운영 능력, 데이터 처리 역량이 필수적이다. 또한 단순 위성 운용을 넘어 통신 서비스, 지리정보, 감시·정찰, 기상·해양 데이터 등 실제 수요처에 맞춘 서비스화가 핵심 부가가치로 작용한다.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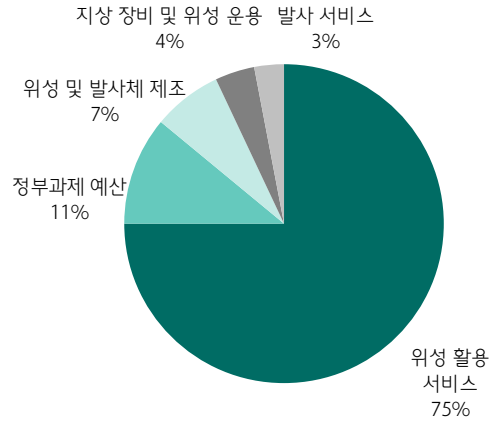
저궤도 위성 통신망이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위성운영 시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글로벌 통신사, 국방·정보기관, 물류·해양·에너지 기업들이 위성 기반 데이터와 통신을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안정적인 위성 운용과 데이터 품질에 대한 요구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국방과 공공 영역에서는 위성운영의 자립성과 보안성이 중요해지며, 자국 위성망과 운영 역량을 직접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위성운영 및 서비스는 위성 수 증가에 비해 반복적으로 성장하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위성 발사보다 변동성이 낮고 장기 계약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 위성/항공영상 서비스 시장 전망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s, 하나증권

## 국내 우주산업 부문별 시장규모



자료: 우주산업실태조사, 하나증권

## 위성운영 및 서비스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인텔리안테크	189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Onweb의 글로벌 커버리지 구축, 다중궤도 수요 증가로 해상요 저궤도(LEO) 수요 확대중</li> <li>2026년 글로벌 수주를 통한 게이트웨이 매출 성장과 Onweb Gen2 게이트웨이 프로젝트 참여가 기대</li> </ul>
컨텍	451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성 지상국 운영·관제 서비스 기반의 반복 매출 구조 보유</li> <li>발사-운영-데이터를 연결하는 민간 우주 인프라 핵심 허브</li> </ul>
AP위성	211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위성통신 단말·중계기 전문 기업으로 군·민수 레퍼런스 확보</li> <li>저궤도 위성 확산에 따른 통신 단말 고도화 및 교체 수요 수혜</li> </ul>
세트렉아이	099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소형 위성 본체 설계·제작 역량을 보유한 국내 대표 위성 시스템 기업</li> <li>위성 제조→운영→영상·데이터 서비스로 확장 가능한 저궤도 핵심 플랫폼</li> </ul>
루미르	474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천후 관측이 가능한 초고해상도 SAR 위성 자체 개발 및 제조</li> <li>또한 자체 위성 발사를 통해 위성영상 서비스 분야로 비즈니스 확장 예상</li> </ul>

자료: 하나증권

## 우주 특수소재

### 특수소재 공급망 다변화로 국가 전략 자율성 확보

#### check Point

- 우주·방산·반도체·차세대 에너지 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면서 특수소재의 전략적 중요성이 크게 부각
- 고온, 고압, 고진공, 방사선, 극저온 등 범용 소재로는 대응이 불가능한 영역이 빠르게 증가 중
- 특수소재는 우주·방산·반도체·에너지 등 전략 산업 전반에서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 자립의 핵심 요소로 부상
-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재편으로, 공급망 다변화 수요가 확대되고 점차 전략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음

####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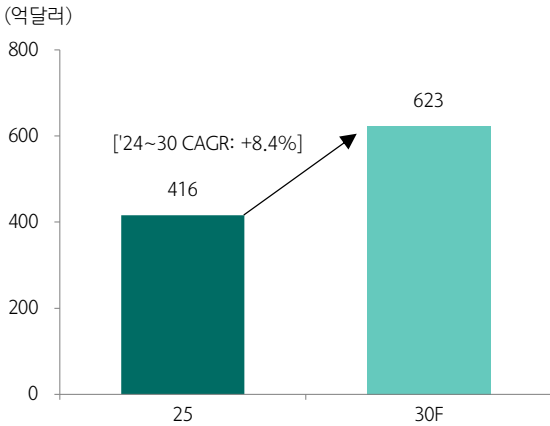
특수소재는 일반 산업용 소재와 달리 특정 목적과 극한 조건에 맞춰 설계된 고부가 소재로, 내열·내마모·내식·내방사선·경량·고강도 등의 특성을 동시에 요구받는다. 우주·방산에서는 로켓 및 위성 구조재, 엔진 부품, 광학 소재, 열 차폐 소재 등이 대표적이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고순도 세라믹, 특수 금속, 복합 소재가 핵심 역할을 한다. 이러한 소재는 단순 원재료가 아니라 공정, 가공, 코팅, 후처리 기술까지 결합된 형태로 공급되며, 실제 양산 적용까지 오랜 검증 과정을 거친다.

#### ✓ 현황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특수소재의 공급 안정성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특히 방산·우주·원전·반도체와 같이 전략 산업으로 분류되는 분야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를 국산화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특수소재 기업들은 단순 소재 공급업체가 아니라, 설계 단계부터 고객과 공동 개발에 참여하는 파트너로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한 번 채택된 소재는 장기간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매출의 가시성과 지속성이 높다는 점도 특징이다. 중장기적으로 특수소재 산업은 국가 전략 산업의 성장과 함께 구조적인 수요 확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우주·방산 산업 확장과 함께 특수소재 수요도 동반 성장하고 있다. 발사체, 위성, 항공기, 미사일, 반도체 장비 등은 모두 고신뢰성 소재를 요구하며, 소재 성능이 시스템 전체의 한계를 결정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최근에는 국산화와 공급망 다변화 요구가 강화되면서 기존 글로벌 메이저 중심 구조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특수소재는 공정 노하우와 장기간의 신뢰성 검증이 필수적이어서 신규 진입이 쉽지 않으며, 이러한 진입장벽은 기존 업체의 중장기 실적 안정성을 뒷받침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우주/항공 특수 소재 시장 전망



자료: marketsandmarkets, 하나증권

### 우주/항공 특수소재/응용처 예시

소재	우주용 주요 기능	응용처
Al-Li 합금	구조체 경량화	위성 버스 · 로켓 구조체
탄소복합재	강도·경량	위성 패널, 페어링
전자파 차폐재	신호 안정화	위성 RF 새시
고온합금	극한 환경 내구	엔진 부품, 방열체
열차폐 세라믹	열 보호	재진입체·방열 보호
특수 접착/본딩	접합 신뢰성	소형부품 결합

자료: 하나증권

### 특수소재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에이지브이엠	295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사체·항공우주·방산용 고내열·고강도 금속 소재 공급 기업</li> <li>민간 발사 증가 및 우주 산업 확대에 따른 소재 수요 구조적 성장</li> </ul>
알맥	354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V·우주·방산용 경량 알루미늄 압출 부품에 특화된 기업</li> <li>경량화·고강성 요구 확대에 따라 ASP 상승이 가능한 구조</li> </ul>
스피어	347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항공우주·방산 특수소재에 집중한 니치 플레이어</li> <li>국산화·소량다품종·고신뢰성 소재 중심의 안정적 포지션</li> </ul>
세아베스틸지주	0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산·원전·우주용 특수강 포트폴리오를 보유한 전략 소재 기업</li> <li>국가 전략산업 투자 확대에 따른 중장기 수혜 가능성</li> </ul>
이녹스첨단소재	272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세계 OLED 및 반도체 PKG 소재 등 소재 전문기업</li> <li>특수 필름소재 관련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세계 최대 우주항공 기업에 EMI(전자기파 차폐) 캐리어 테이프 공급하며 밸류체인 진입</li> </ul>

자료: 하나증권

우주

## 발사체/발사 서비스

## 발사체 시장의 비용 혁식과 상업적 가속화 시작

## check Point

- 발사체·발사 서비스 시장은 SpaceX를 기점으로 산업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 중
- SpaceX는 재사용 로켓 'Falcon 9'을 통해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연간 수백회에 달하는 발사를 실현
- 이로 인해 발사체를 “프로젝트성 제조업”에서 “반복 운송 서비스”로 전환하는데 성공
- 발사체는 더 이상 희소한 국가 전략 자산이 아니라 우주 인프라의 일부분으로 인식되기 시작

##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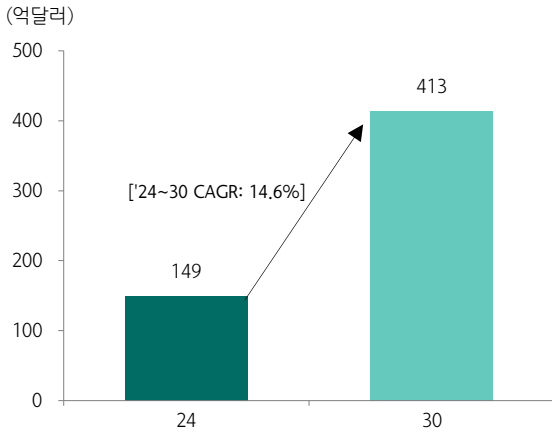
발사체는 위성과 화물을 지구 궤도 또는 심우주로 운송하는 로켓 시스템을 의미하며, 발사 서비스는 발사체를 기반으로 고객 위성을 궤도에 투입하는 상업적 서비스를 포함한다. 발사 서비스는 발사체 성능뿐 아니라 발사 준비 기간, 성공률, 궤도 투입 정확도, 고객 맞춤형 옵션 등 종합적인 요소로 경쟁력이 결정된다. 최근에는 재사용 기술, 소형 위성 전용 발사체, 다중 위성 동시 발사 등 다양한 모델이 등장하며 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민간 주도 발사체 시장을 견인하는 글로벌 기업으로는 스페이스X, 로켓랩, ULA, 소유즈, Relativity 등이 있으며 국내 기업으로는 대표적으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이노스페이스가 있다. 글로벌 위성 발사 수는 저궤도 위성망 구축과 소형 위성 확산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발사체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중소형 발사체와 전용 발사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이다.

## ✓ 현황

SpaceX는 발사 서비스와 위성 서비스(Starlink)를 수직 계열화함으로써 외부 수요에 의존하지 않는 자체 발사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이는 발사체의 고정비를 내부 수요로 흡수하며 원가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는 구조로, 단순 발사 서비스 업체와는 비교가 어려운 진입장벽을 형성한다. 이러한 구조는 글로벌 발사 시장에서 SpaceX의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시키는 동시에, 타 발사체 업체들에게는 비용·빈도·신뢰성 측면에서 매우 높은 경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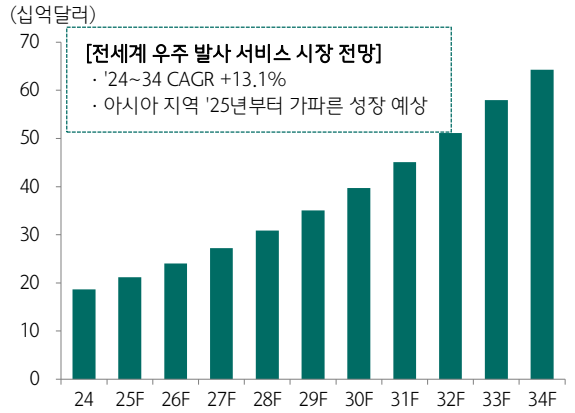
Rocket Lab은 발사 서비스 단일 모델에 머무르지 않고, 위성 본체 제작, 위성 버스, 태양전지판, 지상국 및 임무 운영 서비스까지 사업을 확장하며 발사 이후 단계의 매출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는 발사 횟수 변동에 따른 실적 변동성을 완화하며, SpaceX와 정면 대결을 피하면서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다. 결과적으로 발사체·발사 서비스 시장은 SpaceX가 정의한 초대형·저가·고빈도 모델과, Rocket Lab이 추구하는 소형 위성 중심의 맞춤형·통합 서비스 모델이 병존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으며, 투자의 관점도 “누가 더 많은 발사를 하느냐”보다 “어떤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인가”가 핵심 판단 기준으로 변화하고 있다.

### 우주 발사체 서비스 시장 전망



자료: Fortune Business Insight, 하나증권

### 글로벌 우주 발사 서비스 시장 전망



자료: Precedence Research 하나증권

### 발사체/발사 서비스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이노스페이스	462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소형 발사체 상업화를 목표로 하는 민간 우주 기업</li> <li>위성 소형화 트렌드에 따른 글로벌 스페이스 발사 수요 직접 수혜</li> </ul>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2740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사체 엔진 섹션 및 인터탱크 부품을 생산</li> <li>NASA,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와 스페이스X 공급망에도 참여 중에 있음</li> </ul>
비츠로테크	042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츠로테크의 자회사로 우주항공 로켓, 발사체 부품을 제조</li> <li>누리호 발사체 엔진 부품을 공급하며 안정적인 밸류체인 구축</li> </ul>
비츠로셀	082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우주 발사체용 특수 리튬 전지, 배터리 팩을 개발하여 전원 공급 장치를 납품</li> <li>비츠로셀의 군사용 미사일 전지 제조 기술을 바탕으로 발사체용 배터리 국산화 수혜 가능</li> </ul>

자료: 하나증권

## 로봇 산업용 로봇(물류)

### 물류산업의 패러다임을 교체할 로봇 영역

#### check Point

- 산업용 로봇은 전통적인 자동화 설비를 넘어, 인력 구조 변화와 제조 패러다임 전환의 직접적인 수혜 영역
- 글로벌 제조업은 자동화를 넘어 공정 전체를 재구성할 수 있는 로봇에 대한 니즈가 확대되고 있음
- S/W와 AI의 결합으로 기존 H/W 경쟁에서 최적화, 시뮬레이션 등의 S/W 역량 경쟁도 심화 되고 있음
- 산업 로봇은 단순 장비가 아니라, 라인 전체의 효율을 결정하는 시스템 단위의 투자로 인식되고 있음
- 고객사 역시 초기 도입 비용보다 총소유비용(TCO)과 운영 효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 중

####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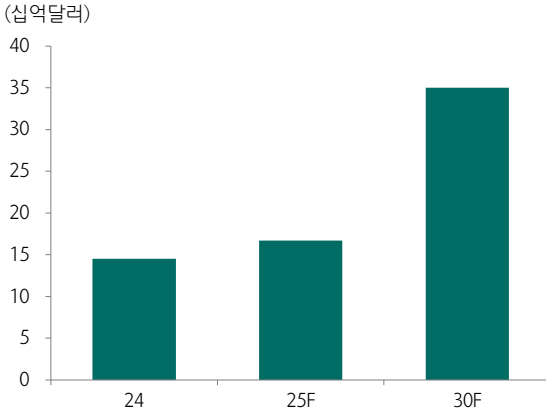
산업용 로봇은 제조·물류 현장에서 용접, 조립, 이송, 적재, 검사 등 반복적이거나 정밀한 작업을 수행하는 자동화 로봇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자동차 산업의 용접·도장 공정을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최근에는 전자, 반도체, 이차전지, 물류, 식음료 등 적용 산업이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 로봇 본체(매니플레이터) 외에도 감속기, 서보모터, 제어기, 센서, 비전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이 결합된 복합 시스템 산업이라는 점에서 진입장벽이 높다. 또한 최근 산업용 로봇은 협동로봇, 모바일 로봇, 물류 로봇 등으로 세분화되며, 기존의 “고정식·대량생산” 중심 구조에서 “유연 생산·다품종 소량”에 적합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이는 로봇이 단순히 사람을 대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생산 방식 자체를 바꾸는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 ✓ 현황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은 단기 경기 변동에 따라 발주 사이클의 변동성은 존재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꾸준한 보급 확대 흐름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세계 최대 로봇 수요국으로 자리 잡았으며, 유럽과 일본은 고정밀·고신뢰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에서도 리쇼어링과 자동화 투자가 확대되며 로봇 도입이 재가속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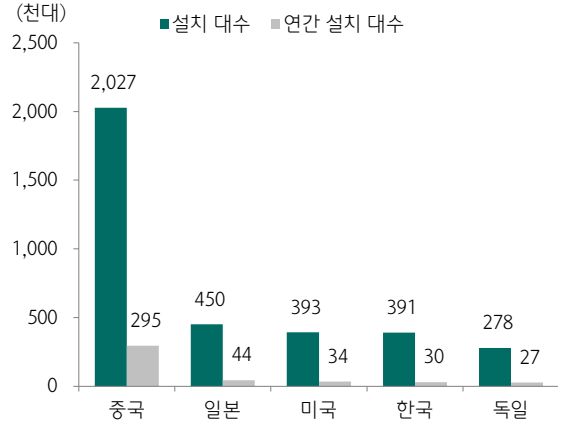
산업별로는 자동차 산업의 의존도가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이차전지·반도체·물류 자동화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이차전지 공정에서는 고정밀 적층·조립 로봇 수요가,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서는 클린 환경 대응 로봇과 이송 자동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물류 분야에서는 이커머스 확산과 함께 피킹·적재·이송 자동화가 빠르게 확산되며 산업용 로봇의 적용 범위를 넓히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용 로봇 산업은 하드웨어 단가 경쟁에서 벗어나, 공정 이해도와 소프트웨어 역량을 바탕으로 한 시스템 통합 능력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구조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단순 로봇 제조사보다 특정 산업에 특화된 자동화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 글로벌 산업용 로봇 시장 전망



자료: Grandview Research, 하나증권

## 글로벌 5대 산업용 로봇 시장



자료: World Robotics 2025, 하나증권

## 산업용 로봇(물류)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현대무백스	056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마트 물류·자동창고 턴키 수주 역량을 보유한 물류 자동화 기업</li> <li>대기업 그룹 수요 및 글로벌 고객 기반으로 중장기 성장 안정성 확보</li> </ul>
에스에프에이	007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데이터센서, 센서, AI 기반의 스마트팩토리 로봇 기술을 확보</li> <li>특히 로봇 피킹 시스템(RPS)를 통해 반도체, 2차전지, 유통 등 다양한 전방 산업으로 저변 확대</li> </ul>
에스엠코어	117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조·물류 자동화 턴키(설계~구축) 역량을 가진 시스템 기업</li> <li>2026년 FAB 투자 본격 확대 및 반도체형 Hi-Tech 물류 자동화 장비향 신규 수주 기대</li> </ul>
티로보틱스	4595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유일 OLED 진공로봇 개발 기업으로, 진공환경 파티클 최소화 기술과 초정밀 제조기술 보유</li> <li>OLED 진공 로봇 기술에 기반한 유리기판 이송 로봇을 개발 중으로 유리기판 상용화 수혜 예상</li> </ul>
나우로보틱스	388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드웨어 제조 기술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물류 자동화 다관절 로봇 ODM 개발을 추진 중</li> <li>2026년부터 물류 로봇 ODM 사업 개시, 2027년 초대형 로봇 및 휴머노이드 로봇 상용화 목표</li> </ul>
유일로보틱스	2828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로봇 자동화 장비 및 적용 솔루션 제공, SK향 핵심 제조라인 대규모 수주 기대감 지속</li> <li>인천 청라 신사옥 준공, 대형 로봇 조립 및 핵심 고객사 대규모 수주에 대한 대응력 확보</li> </ul>
코원테크	056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차전지 공정 및 물류 자동화 장비 업체로 턴키 통합 역량 강화 중</li> <li>배터리 셀 자동화 중심에서 ESS향으로 영역 확대, 글로벌 ESS제조업체 AMR 및 조립로봇 공급계약 체결</li> </ul>

자료: 하나증권

## 로봇 수술용 로봇

### 의료 로봇 2.0 시대 도래와 글로벌 시장 침투 확대

#### check Point

- 로봇을 통한 수술 자동화가 아닌 핵심 인프라로 거듭나며 수술 패러다임 자체가 변화 중
- 회복 기간 단축, 출혈 및 합병증 감소 등 이점이 부각되며, 병원/환자 모두 로봇의 필요성을 받아들이고 있음
- 단순 판매가 아닌 소모품, 업그레이드, 수술 데이터 활용 등 반복 매출 창출로 플랫폼 비즈니스로 전환 중
- 수술용 로봇은 의료기기 투자가 아니라, 병원의 장기적 설비이자 운영 전략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음

#### ✓ 정의

수술용 로봇은 외과외과 콘솔을 통해 로봇 팔과 수술 기구를 원격 조작함으로써 고정밀 수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의료 로봇 시스템이다. 손떨림 보정, 고배율 3D 시야, 미세 조작 기능을 통해 인간의 한계를 보완하며, 좁은 수술 공간에서도 정밀한 절개와 봉합이 가능하다. 현재는 비뇨기과, 산부인과, 외과를 중심으로 보급이 확대됐으며, 정형외과·신경외과·흉부외과 등으로 적용 영역이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 수술용 로봇 산업은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영상 처리, 제어 알고리즘, 정위(stereotactic) 기술 등 복합 기술이 결합된 고난도 산업이다. 특히 임상 데이터 축적과 규제 승인 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규 진입 장벽이 매우 높고, 한번 도입된 플랫폼은 장기간 유지되는 경향이 강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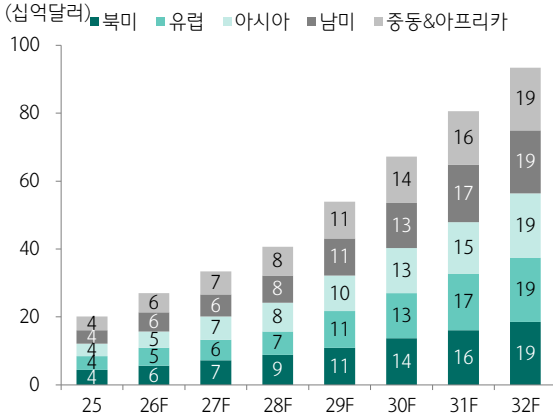
#### ✓ 현황

글로벌 수술용 로봇 시장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 왔으며, 최근에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선도 업체가 구축한 방대한 설치 기반(installed base)은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동시에, 소모품과 서비스 매출을 통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동시에 각국 의료 시스템의 비용 효율성 요구가 커지면서, 수술 성공률과 회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로봇 수술의 경제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최근에는 단일 범용 로봇 중심 시장에서 벗어나, 특정 수술 분야에 특화된 로봇 시스템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다. 정형외과 로봇, 뇌척추 수술 로봇, 내시경·카테터 기반 로봇 등으로 세분화가 진행되며, 기존 독점 구조가 점진적으로 완화되고 있다. 이는 의료 로봇 시장이 초기 독점 단계를 지나 본격적인 기술 경쟁과 응용 확장 국면으로 진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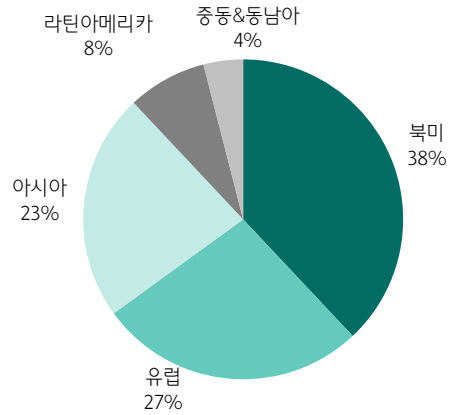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수술용 로봇은 AI 기반 영상 분석, 수술 경로 계획, 수술 데이터 축적과 결합되며 단순 보조 장비를 넘어 “지능형 수술 플랫폼”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수술용 로봇 산업은 의료기기 산업 내에서도 가장 높은 진입장벽과 가장 긴 성장 가시성을 동시에 보유한 영역으로 평가된다.

### 글로벌 의료 로봇 지역별 시장 전망



자료: Data Bridge, 하나증권

### 글로벌 의료 로봇 지역별 시장 점유율(2024년 기준)



자료: Precedence Research, 하나증권

### 수술용 로봇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고영	098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반도체 패키징 후공정 및 SMT 장비, 서버 고객사 공급계약이 실적 반영될 전망</li> <li>뇌수술용 로봇 2026년 20대 판매 계획에 따라 미국, 일본, 영업 가속화 및 중국 NMPA 인허가 계획 중</li> </ul>
큐렉소	060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관절 수술로봇 CUVIS-joint, 척추수술로봇, CUVIS-spine, 보행재활로봇 Morning Walk 라인업 보유</li> <li>의료로봇 라인업 확대, 인도 유통망 정상화, 일본 교세라그룹 독점계약을 통해 해외시장 기반 성장 기대</li> </ul>
리브스메드	49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복강경 로봇 시스템 Stark 출시 예정, 다관절 복강경 수술 기구 기업에서 로봇 기업으로 전환</li> <li>2026년말 국내 품목 허가 예정, 2027년 흑자전환을 시작으로 가파른 성장세 예고</li> </ul>

자료: 하나증권

## 로봇

## 휴머노이드 로봇

## 처음이자 마지막 범용 AI

## check Point

- 범용 인간 노동 대체형 플랫폼 중심의 산업 구조 재편이 예상되는 국면
- 액추에이터·감속기·토크 센서의 성능 고도화와 원가 절감, 저전력 설계가 양산 확산의 변수
- Physical AI와 생성형 AI 결합에 따른 자동학습 기반 로봇 출현
- 미국 소프트웨어 역량, 중국 가격 경쟁력 등을 감안한 국내만의 전략 필요

##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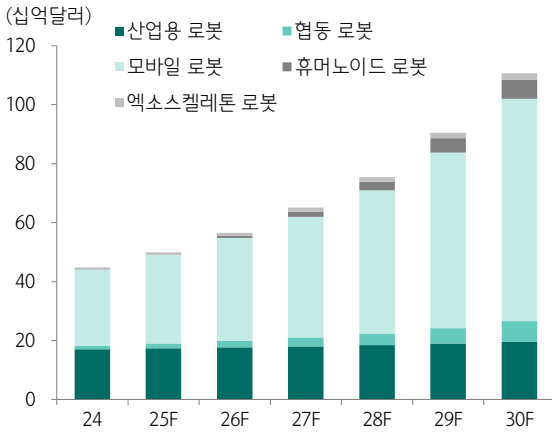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움직임과 인지 기능을 유사한 수준으로 구현하는 로봇으로, 로봇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인식되어 왔다. 기존에는 산업용 로봇과 협동로봇 중심으로 반복 작업 보조와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으나, 생성형 AI + Physical AI의 발전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속도가 빠르게 앞당겨지고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단순한 반복 동작이 아닌 보행, 파지, 힘 조절 등 복합적이고 유연한 움직임을 요구하므로 동작 정밀도가 핵심 경쟁력이 되며, 이에 따라 고성능 액추에이터와 감속기, 토크 센서가 핵심 부품이다. 또한 비전·촉각 센서와 온디바이스 시가 결합되며 학습 기반의 범용 작업 수행이 가능해지고 있다. 현재는 부품 단가와 학습 데이터 구축 비용으로 인해 가격대가 높은 편이나, 양산 체계와 구독형 운영 모델이 정착될 경우 서비스제조·물류·방산 등 전 산업으로 확장 가능한 범용 플랫폼이 될 가능성에 시장은 주목하고 있다.

## ✓ 현황

CES 2026 Boston Dynamics가 양산형 'Atlas'를 공개하며 Physical AI의 미래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다. 서버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 로봇 자체가 데이터 수집·해석·예측과 실시간 학습을 수행하는 온디바이스 체계로 전환되며, 동작 지연 최소화화 and 산업 적용 성능 개선이 진행 중이라는 점이 확인 되었다. 로봇(기계)과 AI(SW)의 결합이 산업의 최대 관심사로 자리 잡는 가운데 미국/중국 중심으로 상용화 경쟁이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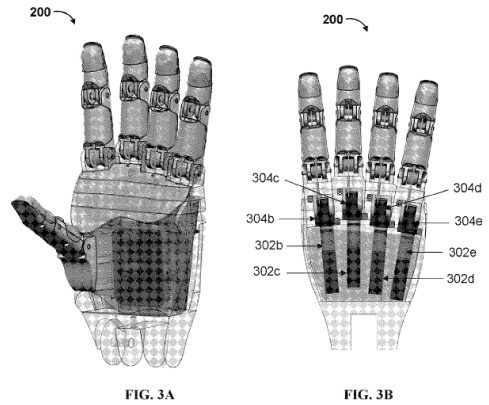
미국 Tesla 'Optimus Gen 3'를 2026년 공개하고, 2026-2027년 본격 양산해 공장 내 단순 반복 공정을 대체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연내 10만대 생산과 증장기 100만대 체제 구축을 목표로 원가 2만 달러 이하 달성을 로드맵이 1H26 공개될 것이다. 중국은 Unitree, Ubtech, Agibot이 보급형 모델을 고도화하며 산업 시장에 진입했고, 춘절 갈라 Unitree 공연을 계기로 대중화 모멘텀을 확보했다. 국내는 K-Humanoid Alliance 중심의 국가 전략 아래 2029년 대량 생산을 추진 중이다. 현대차는 Boston Dynamics와 협력해 'Atlas'를 생산 라인에 시범 배치한다는 계획이고, POSCO는 Persona AI와 제철소 물류 자동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와 개발을 가속화하고 LG전자는 '에이전트 Q9' 적용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액추에이터와 공급망 경쟁력에서 기회를 모색 중이다.

## 글로벌 로봇 시장 규모 및 전망



자료: ABI research

## 휴머노이드 로봇 핸드



자료: Tesla, 하나증권

##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로보티즈	108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6년 물류 시장 진출을 위해 가반하중 20kg 이상급 Heavy-Duty 휴머노이드 출시 예정</li> <li>동시에 미국 휴머노이드 개발사에 납품할 휴머노이드 핸드도 본격 개발 중</li> </ul>
에스피지	058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대표 로봇 액추에이터(감속기) 전문 업체이며, 업계에서 국내 최고 기술력으로 인정 받아</li> <li>삼성/LG/현대 등 대기업 로보틱스 업체들과 협력이 강화되고 있는 국면</li> </ul>
삼현	437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차그룹의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 선언에 따라서 부각을 받고 있는 차량 구동계 모듈 제조사</li> <li>듀얼 3-1 EPT 제품으로 방산 분야에서 성장 중이며, 최근 휴머노이드용 크라운 감속기 개발 시도</li> </ul>
하이젠알앤엠	160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QDD와 Axial Flux Motor 등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업체</li> <li>미래에는 액추에이터 내 모터 중요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알고 기술 개발 속도를 올리는 과정</li> </ul>
현대모비스	0123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대차그룹 대표 액추에이터 제조 업체이며, 보스턴다이내믹스 볼름 생산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li> <li>휴머노이드에 국한되지 않고 현대차 계열사와 연계한 로봇 부품 제조 역량 강화 예상</li> </ul>
에스비비테크	38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 Harmonic Drive System 감속기를 최초로 국산화한 업체</li> <li>방산/자동차 등 산업용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이며 휴머노이드 분야도 적용 가능한 제품 보유</li> </ul>
레인보우로보틱스	277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에서 자회사로 편입한 국내 대표적인 미래 로보틱스 업체이며 휴머노이드 개발 중</li> <li>레인보우로보틱스 AMR/협동로봇/모터/데이터 수집 기술 + 삼성 제조역량 시너지 기대</li> </ul>
뉴로메카	348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6년 CES에서 휴머노이드 폼팩터를 선보이면서 시장에 큰 Surprise 가져온 업체</li> <li>협동용 로보틱스 업체이며, 최근에는 중국 디스플레이 산업에 진출. 중장기적으로 휴머노이드 개발</li> </ul>
케이엔알시스템	199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보스턴다이내믹스에 유압식 액추에이터를 납품한 업체</li> <li>최근에는 하이브리드 액추에이터를 개발 중이며, 서진시스템과 협력해 부품 생산량 확대 노력 중</li> </ul>

자료: 업계자료, 하나증권

## 로봇 로봇 부품

### 소재 없는 반도체가 없듯, 부품 없는 로봇은 없다

#### check Point

- 로봇 부품은 산업 성장의 직접적/구조적 수혜 영역으로, 보급이 확대될수록 수요가 누적되는 핵심 밸류체인
- 완성 로봇은 투자 사이클에 따라 변동성이 존재하나, 부품은 교체 및 업그레이드 지속적인 수요 발생이 가능
- 산업/협동/의료/물류 등 유형이 다양해질수록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 부품의 중요도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중요한 변화는 로봇 부품의 경쟁이 원가 경쟁에서 성능·정밀도·신뢰성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점
- 로봇 부품은 더 이상 범용 기계 부품이 아니라, 로봇 전용 고부가 정밀 부품 산업으로 재정의되고 있음

#### ✓ 정의

로봇 부품은 로봇의 구동, 제어, 인지 기능을 구현하는 핵심 구성 요소로, 대표적으로 감속기, 서보모터, 구동기, 제어기, 엔코더, 센서, 전력 모듈 등이 포함된다. 이들 부품은 로봇 관절의 정밀한 위치 제어와 반복 정확도를 좌우하며, 로봇의 작업 속도·하중내구성을 결정한다. 특히 감속기와 서보모터는 로봇 원가 구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부품으로, 기술 장벽과 진입 장벽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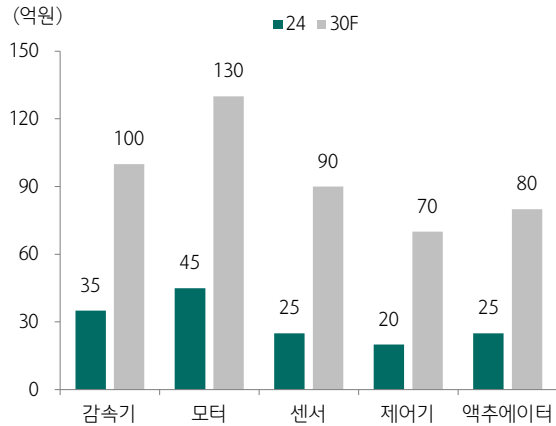
최근에는 로봇 부품이 단독 하드웨어를 넘어,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고효상도 엔코더와 센서는 로봇의 실시간 피드백 제어와 AI 기반 인지·보정 기능의 기반이 되며, 이는 협동로봇과 의료 로봇에서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 ✓ 현황

글로벌 로봇 시장에서 핵심 부품은 일본과 유럽 업체들이 오랜 기간 기술적 우위를 유지해 왔으나, 최근에는 공급망 다변화와 원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 국산화·대체 공급선 확보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고급 부품은 기존 강자에 의존하되 중저가·범용 부품에서는 신규 업체 진입이 늘어나는 이중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로봇의 적용 산업이 확대되면서 부품 사양도 빠르게 세분화되고 있으며, 협동로봇과 의료 로봇에는 안전성, 정숙성, 정밀 제어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단일 부품을 범용으로 공급하기보다, 특정 로봇 유형과 공정에 최적화된 부품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로봇 부품 산업은 로봇 설치 대수 증가에 따른 양적 성장과 함께, 로봇 지능화·정밀화에 따른 질적 성장이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감속기, 모터, 센서, 제어 부품 등 핵심 영역에서는 기술 진입장벽이 높아 신규 경쟁이 제한적인 반면, 한번 채택되면 장기간 거래 관계가 유지되는 특성이 있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로봇 부품은 로봇 산업 전반의 성장성을 가장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핵심 테마로 평가된다.

## 로봇 레이어별 시장 전망



자료: 하나증권

## 부품별 투자 포인트 예시

부품군	투자 포인트
감속기	제조 자동화 + 더 높은 마진
모터/드라이브	고효율화 + AI 제어 통합
센서	자율정밀 + 안전기능 확산
AI/제어	에지 인텔리전스 확대
연결/통신	산업 IoT & 5G/Private 5G 연계 수요

자료: 하나증권

## 로봇 부품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에스피지	0586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술력과 대량 수주 대응력을 기반으로 국내외 글로벌 신규 고객사 확대하며 중장기 실적 성장 전망</li> <li>S사 해외 공장 감속기 부품 교체, LG사이언스파크 MOU체결은 추가적인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li> </ul>
로보티즈	108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로봇사업 기반으로 연간 4개 분기 모두 흑자 기록</li> <li>2026년 하반기 우즈베키스탄 액추에이터 증설, 바퀴형 휴머노이드 AI Worker 2026년 출하량 증가 전망</li> </ul>
에스비비테크	389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업황 호조로 베어링 부문 실적은 개선세 지속 중</li> <li>하반기 로봇 완제품 신규 거래선 확대 등의 프로젝트로 감속기/액추에이터 부문 가시적 성과 기대</li> </ul>
우림피티에스	101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글로벌 기어박스 전문기업으로, 초정밀 부품부터 초대형 기어박스에 이르는 폭넓은 제품 라인업 구축</li> <li>글로벌 휴머노이드 전문 업체인 로봇용 기어박스 공급과 방산 향 프로젝트가 기대요인</li> </ul>
하이젠알앤엠	1601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최초로 서보모터 국산화에 성공하며, 현재 대기업 로봇 메이커들과 다수의 프로젝트 진행 중</li> <li>2026년 상반기 휴머노이드용 제품 개발 완료 예정</li> </ul>
KH바텍	060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장 부문 차량용 TDP 본격 양산과, 차량용 롤러블 힌지 중심으로 수주 확대 흐름 지속 중</li> <li>로봇용 관절 사업의 수주 확대와 감속기 시장으로의 추가 진출 계획을 통해 외형 확대 기대</li> </ul>

자료: 하나증권

## IT 반도체/HBM

### HBM, 학습을 넘어 학습&추론으로, AI 데이터센터 메모리 구조 전환

#### check Point

- 추론 수요 확대로 HBM 활용 범위가 학습 중심에서 AI 데이터센터 전반으로 확대
- KV 캐시와 멀티모달 처리 확산으로 서버당 메모리 대역폭 요구가 구조적으로 상향
- 고적층 공정과 수율 부담으로 단기간 공급 탄력성 개선은 제한적인 상황
- 패키징·본딩·테스트 병목이 HBM 출하 상한을 결정하는 핵심 변수로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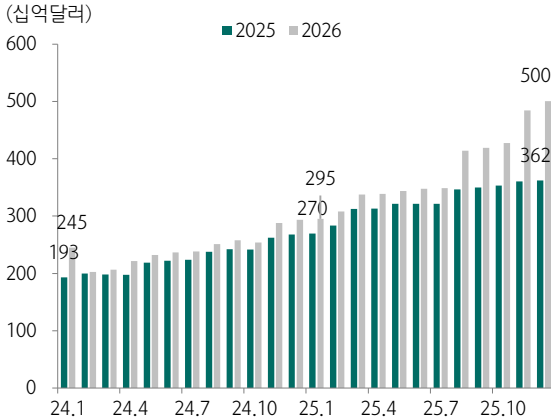
#### ✓ 정의

HBM(High Bandwidth Memory)은 TSV 기반 적층 구조를 적용해 다수의 DRAM 다이를 수직 연결함으로써, 기존 메모리 대비 월등한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구현한 고대역폭 메모리다. AI 가속기와의 근접 패키징을 전제로 설계되어, 대규모 연산 환경에서 데이터 이동 병목을 완화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최근에는 학습 중심 활용을 넘어, 대규모 추론 워크로드와 KV Cache 처리, 멀티모달 연산 환경까지 대응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AI 데이터센터 성능과 처리량을 좌우하는 필수 인프라 메모리로 인식되고 있다.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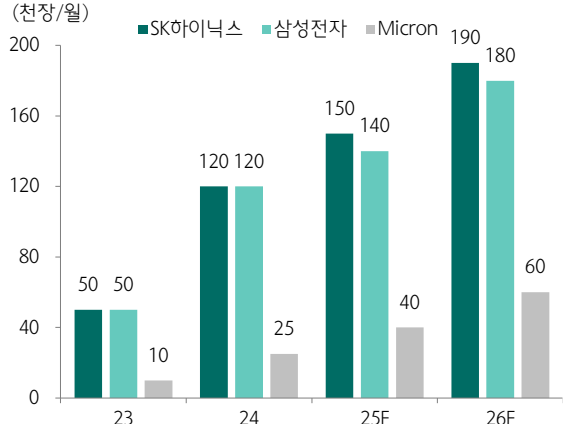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2026년에도 확대되는 가운데, HBM 수요는 학습중심에서 학습과 추론이 결합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AI 컴퓨트에서 추론 워크로드 비중이 과반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는 환경에서, 실시간·멀티모달 서비스 확대와 KV Cache 증가로 서버당 메모리 대역폭 요구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HBM은 학습용 투자 사이클에 연동된 수요 패턴에서 벗어나, AI 데이터센터 확장과 직접 연계되는 성장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HBM3E와 HBM4는 TB/s급 대역폭과 전력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며, 추론 환경에서도 필수 메모리로 채택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차세대 제품 전환과 증설을 병행하고 있으나, 적층 수 증가와 공정 난이도 상승으로 단기간 공급 탄력성 개선은 제한적이다. 고적층 공정 안정화와 수율 부담이 병존하는 가운데, HBM 출하의 실질 상한은 메모리 캐파뿐 아니라 첨단 패키징과 후공정 역량의 중요도가 함께 부각되는 구조로 전환되고 있다. TSMC의 CoWoS 계열 패키징은 엔비디아 가속기 출하 확대와 맞물리며 분당·테스트·인터포저 공정 전반에서 병목이 이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HBM 공급 확대 역시 패키징 증설 속도에 직접 연동되는 모습이다. 이러한 여건 속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을 포함한 차세대 패키징 기술 도입도 2026년 말 전후로 점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HBM 세대 전환과 패키징 연계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가운데, 국내 메모리 업체와 후공정 밸류체인은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수혜 구간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글로벌 빅테크4社 CAPEX 컨센서스 추이 및 전망



주: 알파벳,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합계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취합

### DRAM 주요 3社 TSV CAPA 추이 및 전망



자료: Trendforce, 하나증권

### 반도체/HBM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삼성전자	005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추론 시장 확대로 고용량 서버 DRAM 수요와 AI 연산지원이 가능한 NAND 수요가 실적 견인 중</li> <li>컨센기준 2026년, 2027년 영업이익은 166조원, 184조원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li> </ul>
SK하이닉스	000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서버 수요가 주도하며 DRAM Bit Growth는 20% 이상 성장, NAND는 eSSD 중심 수요 확대</li> <li>2026년 HBM 비중 50% 이상 확대되며 컨센기준 영업이익 142조원으로 폭발적 성장 전망.</li> </ul>
한미반도체	042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메모리 수요 강세, NAND 적층 구조의 가능성에 따라 장비 수주 증가를 전망</li> <li>TC Bonder 뿐만 아니라 기존 주력 장비인 MSVP와 EMI Shield도 견조한 수요를 확인</li> </ul>
한화비전	4897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연결 법인 한화세미텍의 SK하이닉스향 TC Bonder 공급 확대로 영업이익 50% 수준의 성장이 예상</li> <li>SK하이닉스의 대규모 장비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사상 최대 실적 기록 기대</li> </ul>
디아이	0031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하이닉스향 반도체 검사장비 HBM4 웨이퍼 테스터 공급 계약 체결</li> <li>2026년 HBM4 전환 본격화로 검사 시간 증가 → 번인·코어 테스트 장비 수요 폭증</li> </ul>
넥스틴	348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의 중화권 수주 부진이 2026년부터 점진적 개선세를 기대</li> <li>중화권 업체들의 투자 재개와, SK하이닉스 투자 확대로 실적 개선 흐름 전망</li> </ul>
팜트론	1683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K하이닉스향 8800WIR-HBM 장비의 매출이 본격화되며 실적 성장 가시화</li> <li>SOCAMM, LPCAMM 모두 대응이 가능한 메모리 모듈 검사 장비 MARS 장비 신규 수주 성과 기대</li> </ul>
피에스케이	319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BM 후공정 식각·증착 장비 핵심 공급사로 AI 고난도 공정 수요 급증</li> <li>국내외 파운드리, 메모리 고객사 투자 확대로 실적 상향 전망</li> </ul>
HPSP	4038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 HBM 수율 핵심, 삼성·SK 공급 확대</li> <li>로직/파운드리 업계 선단 공정 투자 확대 흐름에 이익 성장 재개 기대감 유효</li> </ul>
리노공업	058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ASIC-GPU 등 AI R&amp;D/양산 소켓 수요 증가 → 2026년 고부가 소켓 단가 및 물량 상승 기대</li> <li>2026년 Capa 증설·공장 이전 완료로 중장기 실적 레버리지 본격화</li> </ul>
ISC	095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실리콘 러버 소켓 글로벌 점유율 1위, HBM 테스트 솔루션 공급 본격화</li> <li>AI GPU의 데이터 전송 속도 향상 및 주파수 대역폭 증가되며 실리콘 러버 소켓 채택이 증가 중</li> </ul>

자료: 하나증권

## IT 기판

### AI 서버·가속기 확산에 따른 FC-BGA 중심의 고부가 실적 사이클

#### check Point

- AI 서버와 가속기 중심으로 패키징이 고도화되며, 기판은 공정 미세화 만큼 성능을 좌우하는 병목으로 재부상
- 특히 CPU·GPU·AI 가속기에 쓰이는 FC-BGA는 고속 신호 무결성과 전력 공급을 동시 충족이 요구됨
- 층수 증가, 회로 미세화, 저손실 소재 적용이 빠르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ABF기반 빌드업 공정의 중요도 확대
- 대면적·고다층화로 기술 장벽과 ASP 동반 상승 및 CAPA·수율 확보 여부가 실적 레버리지 좌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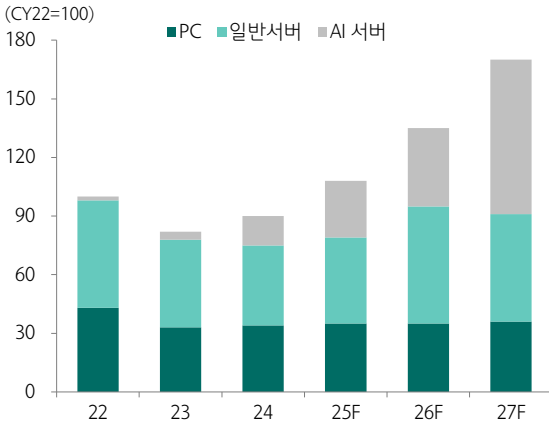
#### ✓ 정의

반도체 패키지 기판(Package Substrate)은 칩(Die)과 메인보드(PCB) 사이의 전기적 연결을 담당하는 고밀도 배선판으로, 칩의 I/O를 팬아웃(fan-out)/재배선(Rewiring)하여 외부와 전기적으로 연결하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고속 신호 전송을 지원한다. FC-BGA(Flip Chip Ball Grid Array)는 반도체 칩을 기판에 뒤집어 직접 접합하는 방식의 고사양 패키지 기판으로, 고집적 신호 전달과 대전력 공급이 동시에 요구되는 서버·AI 가속기용 프로세서에 주로 적용된다. 대면적 기판 위에 고다층 배선 구조와 고주파 대응 설계가 필요하며, 일반 MLB·HDI 기판 대비 제조 난이도와 기술 장벽이 높다. 최근에는 CPU 중심 구조를 넘어 GPU와 주문형 가속기(ASIC)용 패키지로 적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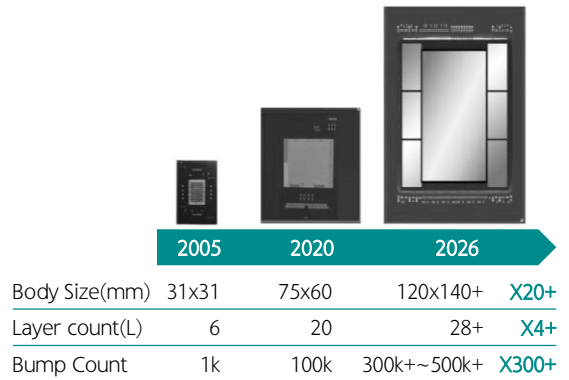
AI 데이터센터 투자가 확대되면서 반도체 기판 수요의 중심은 서버 및 AI 가속기용 FC-BGA로 이동하고 있다. GPU와 주문형 가속기(ASIC) 중심의 인프라 확산으로 패키지 대형화와 고전력·고속신호 대응이 동시에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판의 고다층화와 대면적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는 단순 물량 증가가 아니라, 고부가 제품 비중 확대가 실적에 직접 반영되는 국면이다. 특히 AI 가속기 및 서버용 프로세서는 기존 PC용 CPU 대비 기판 면적과 배선 층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대면적 가공과 고정밀 적층, 미세 결함 제어가 동시에 요구되는 공정 환경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 안정화와 수율 관리 부담이 확대되면서 단위 CAPA당 유효 생산량 역시 제한되는 흐름이다. FC-BGA는 단기간 내 증설 효과가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영역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삼성전기, 대덕전자, 코리아씨키트를 중심으로 서버·AI용 FC-BGA 공급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AI 인프라 확장이 예상보다 강하게 전개되면서, FC-BGA는 기판 산업 내에서 실적 가시성과 투자 민감도를 동시에 높이는 핵심 제품군으로 부각된다. 이에 따라 FC-BGA는 가동률이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AI 서버·가속기용 수요 확대가 이어지는 환경에서 높은 가동률이 중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동시에 고사양 제품 비중 확대에 따른 단가 상승과 수익성 개선이 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 어플리케이션 별 FCBGA 수요 전망



자료: Ibsiden, 하나증권

## ABF(Substrate) 기판의 기술 진화 방향



자료: Zhen Ding, 하나증권

## 기판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삼성전기	009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MLCC는 제품 믹스, 판가 인하 강도 완화 등 전반적 영업환경 개선 영향으로 ASP 상승 흐름</li> <li>AI 서버-GPU-HBM 패키징용 가동률 상승, FC-BGA 빅테크 6개사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실적 성장 전망</li> </ul>
LG이노텍	011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FC-BGA 기판 사업이 서버-PC CPU용 양산 본격화, 고객사 확대를 통해 적자폭 축소될 전망</li> <li>카메라 모듈의 베트남 생산 체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비용 효율화를 통한 수익성 확보를 도모</li> </ul>
이수페타시스	007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고객사향 데이터센터/AI 가속기용 MLB의 견조한 수요 지속</li> <li>신규 5공장 램프업 진행중, 다중적층 MLB 채용 본격화되는 2026년 하반기 가파른 실적 성장 전망</li> </ul>
대덕전자	3532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2분기 Socamm2 생산 시작 및 LPDDR5향 패키지 공급, 믹스효과 확대로 이익 개선세 전망</li> <li>자동차 전장화, 자율주행 채택률 확대로 FC-BGA 매출 증가 기대</li> </ul>
심텍	222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부가(LPDDR, SOCAMM, LPCAMM, GDDR) 제품 업황 개선으로 가동률 회색세 지속 확대 중</li> <li>2026년 GDDR7 지속 성장 및 SOCAMM 매출 본격화</li> </ul>
티엘비	3568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6,400Gbps과 7,200Gbps Memory Module 수요 지속 중, High-End 제품군 비중 확대 중</li> <li>2026년 하반기 8,000Gbps DDR5제품 적용 예상, DDR6 전환시 ASP 상승 가능</li> </ul>
코리아씨키트	007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서버향 메모리 모듈, FC-BGA 적층 수 상향 요구 대응하며 ASP 단가 상승 구간</li> <li>엔비디아 SOCAMM2 양산, 브로드컴 FC-BGA 공급, 애플 OLED 디스플레이 신규 채택 여부가 기대요인</li> </ul>

자료: 하나증권

## IT 폴더블

### 폴더블, Apple 변수에 따른 글로벌 출하 확대·고사양 전환

#### check Point

- 폴더블은 스마트폰 시장이 성숙한 환경에서 프리미엄 교체 수요를 만들 수 있는 대표적인 폼팩터
- 힌지, UTG, OLED, FPCB 등 핵심 부품의 기술 고도화 및 안정화
- 글로벌 세트 업체들의 신모델 출시 확대와 폴더블 라인업 다변화에 따라 관련된 부품 수요 촉발
- 제품 완성도가 개선되며 교체 수요와 추가적인 보급형 확장 가능성 상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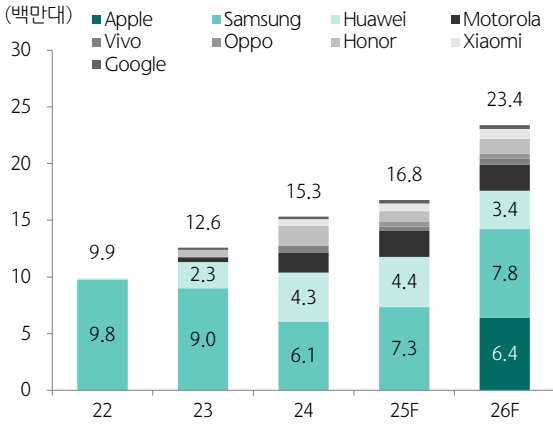
#### ✓ 정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초박형 유리(UTG)와 플렉시블 OLED를 기반으로 반복적인 접힘과 펼침이 가능한 디스플레이 기술이다. 힌지 메커니즘, 박막 봉지(TFE), 커버윈도우, 터치 및 편광 구조가 유기적으로 결합되며, 내구성과 경량화, 광학 특성을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최근에는 단순한 폼팩터 차별을 넘어, 고해상도·고휘도·저전력 특성을 유지한 채 접힘 구조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기술 요구 수준이 고도화되고 있다.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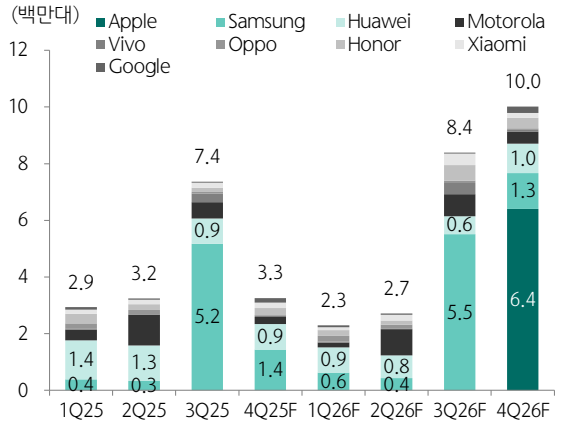
2026년 폴더블 시장은 출하량이 점진적으로 확대되며 프리미엄 스마트폰 내 하나의 고정 제품군으로 자리 잡고 있다. 초기에는 높은 가격과 내구성 이슈로 확산 속도가 제한적이었으나, 최근에는 힌지 구조 개선과 UTG 적용 확대를 통해 제품 완성도가 개선되는 흐름이다. 글로벌 완성품 업체들은 단순 폼팩터 차별보다 반복 내구성·두께 저감·주름 개선 등 사용 경험 고도화에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폴더블 디스플레이는 고사양 패널과 고신뢰 공정이 결합된 기술 산업으로 성격이 전환되고 있다. 실적 관점에서는 출하량 확대와 함께 고부가 모델 비중 확대에 따른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패널 및 핵심 부품 업체 실적에 동시에 반영되는 상황이다. UTG 가공·박막 봉지·라미네이션 공정의 복잡도가 높아 수율 관리 역량과 공정 안정화 수준이 실질적인 차별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폴더블 부품 공급망 역시 기술 성숙과 함께 점진적인 안정화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패널 측면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BOE도 주요 세트업체향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세트 업체 측면에서는 삼성전자가 폴더블을 프리미엄 전략으로 유지하고 있고, 중화권에서는 Huawei/Xiaomi가 제품 완성도 개선과 원가 최적화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Apple의 폴더블 디바이스는 연내 공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며, 국내 디스플레이 및 핵심 부품 벤더들의 선행 대응 움직임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구체적인 출시 시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나, Apple의 진입 가능성 자체가 UTG·힌지·커버윈도우·박막 봉지 등 핵심 공정 전반의 사양 기준과 신뢰성 요구 수준을 한 단계 상향시키는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 글로벌 폴더블폰 연간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 글로벌 폴더블폰 분기별 출하량 추이 및 전망



자료: CounterPoint, 하나증권

### 폴더블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덕산네오룩스	2134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노트북/태블릿 OLED 채택 증가 및 폴더블 폼팩터 시장 확대에 따라 가시적 성장 기대</li> <li>Black PDL 소재로 폴더블·IT OLED 침투율 확대 및 삼성 갤럭시 시리즈 채용 증가 전망</li> </ul>
KH바텍	060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폴더블폰 힌지·커버윈도우 핵심 부품 공급으로 삼성 갤럭시 Z 시리즈 주요 벤더 역할 강화</li> <li>주요 고객사 폴더블 수요에 따라 실적 상향 기대 가능</li> </ul>
미첨단소재	1789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초극박 CPI 필름(폴더블 커버윈도우 소재) 세계 최고 수준 기술력</li> <li>2026년 삼성·애플 폴더블 디스플레이 공급 확대에 수익성 개선 기대</li> </ul>
이녹스첨단소재	2722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미 고객사향 폴더블 소재 납품으로 물량과 단가 상승이 가능할 전망</li> <li>반도체, 우주, 전기차, 2차전지 등 첨단소재 역량을 기반으로 사업 저변 확대 중</li> </ul>
코오롱인더	120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명 PI 필름 원천 기술 보유로 폴더블·중대형 디스플레이(노트북·태블릿) 커버윈도우 공급 확대</li> <li>폴더블, 롤러블 제품 시장의 성장으로 CPI 필름 수요는 2029년까지 2배 가량 증가 예상</li> </ul>
파인애플	441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북미 고객사 폴더블 스마트폰 신규 모델향 매출 발생 기대</li> <li>폴더블 아이폰 출시 대비 힌지 내구성 강화 기술 적용(메탈 플레이트 50% MS 예상)</li> </ul>
비에이치	0904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폴더블 힌지·FPCB·커버 관련 부품 강자로 삼성·애플 폴더블폰 내부 연결·보호 부품 공급</li> <li>2026년 2분기 폴더블폰용 FPCB 실적 반영되며 ASP 상승으로 수익성 제고될 전망</li> </ul>
다케이티	2905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미 IT 고객사의 폴더블 신제품 출시에 따라 2026년 IT OLED 신규 매출 반영될 전망</li> <li>폴더블 신제품의 고집적 고정밀 SMT 기반 FPCA 납품에 따른 믹스 개선 기대</li> </ul>

자료: 하나증권

## 전략자산 ESS

### ESS, 북미 장주기·대형 프로젝트 재개와 시스템 통합 경쟁 본격화

#### check Point

- BloombergNEF, 양수발전 제외 ESS 연간 설치량이 25년 92GW(247GWh) → 35년 누적 2TW(7.3TWh) 전망
- ESS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계통이 필요로 하는 전력 유연성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음
-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인프라 병목 심화 및 재생에너지 변동성 확대에 ESS 필수 인프라화
- 장주기·대형 프로젝트 중심 수요 구조 전환되는 가운데, 시스템·운영 역량 중요도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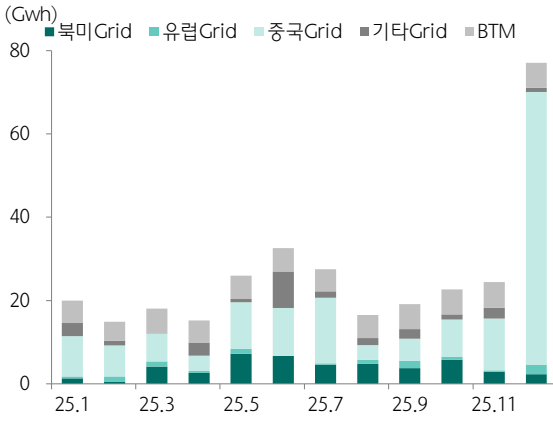
#### ✓ 정의

ESS(Energy Storage System)는 전력을 저장한 뒤 필요 시 공급하는 전력 저장 설비로, 재생에너지의 출력 변동성을 완화하고 전력 계통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다. 배터리 셀뿐 아니라 PCS, EMS, 소방·냉각·모듈 구조물 등을 포함한 통합 시스템 형태로 구축되며, 설치 형태에 따라 전력망 연계형(BESS, grid-scale)과 수요처 설치형(BTM, Behind-the-Meter)으로 나뉜다. BESS는 계통 안정화와 전력거래를 중심으로, BTM은 피크 저감·요금 최적화·자가소비 극대화를 주 목적으로 한다.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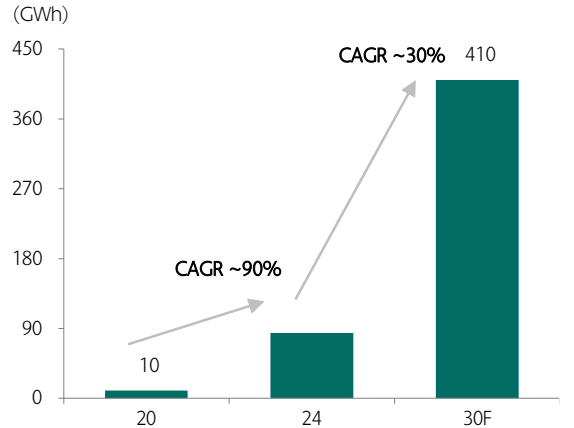
2026년 ESS 시장은 지난해 배터리 산업 전반의 캐즘과 주요 프로젝트 지연에 따른 조정 국면을 지나, 북미를 중심으로 계통 연계형 대형 프로젝트 발주가 재개되며 회복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출력 변동성 심화와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고신뢰 전력 인프라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면서, ESS는 보조 설비가 아닌 전력 계통 안정화를 담당하는 핵심 인프라로 역할이 명확해지고 있다. BloombergNEF는 양수발전을 제외한 글로벌 ESS 연간 설치량이 2025년 92GW(247GWh)로 전년 대비 23%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제시했다. 지역별로는 중국이 전체 설치량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미국이 약 14%로 뒤를 잇는다. 누적 기준 설비 용량은 2035년 2TW(7.3TWh)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ESS 수요가 중장기 전력 인프라 투자와 연계된 구조적 성장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북미 시장에서는 송배전 제약과 계통 안정성 부담이 누적되며 장주기·대용량 프로젝트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의 핵심은 배터리 셀 단계에서 시스템 설계, 열관리·소방, PCS-EMS, 운영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통합 수행 역량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프로젝트 대형화와 함께 단위 수주당 매출 기여도도 확대되는 추세다. 배터리 부문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이 북미 중심 프로젝트 대응을 강화하며 고안전·장수명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국내 밸류체인에서는 대표적으로 서진시스템이 북미 ESS 프로젝트형 대형 구조물과 시스템 하우징 공급을 확대하며 에너지 인프라 영역으로 사업 범위를 넓히고 있다. 2026년 ESS 시장은 북미 대형 프로젝트를 기점으로 시스템 역량을 확보한 업체 중심의 실적 가시성이 높아지는 구간으로 판단된다.

## 글로벌 ESS 신규 설치량 추이



자료: Rho Motion, 하나증권

## 미국 누적 ESS 설치량 전망



자료: BNEF, Fluence Energy, 하나증권

## ESS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LG에너지솔루션	373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SS용 LFP-NCM 배터리 세계 1위로 미국-유럽 전용 공장 증설 본격 가동</li> <li>2026년 ESS 매출 비중 30% 이상 확대, ESS 프로젝트 수주 급증하며 실적 레버리지 극대화 기대</li> </ul>
삼성SDI	0064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거점의 EV → ESS 라인전환, 헝가리 거점의 LFP 라인전환 등을 통한 단기 손실폭 축소 기대</li> <li>미국 ESS 시장 내 주요사업자향 공급 가시화에 따른 성장 유효할 전망</li> </ul>
SK이노베이션	096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회사 목표치인 20GW ESS 수주잔고 확보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유효할 것</li> <li>LFP ESS 2026 하반기 미국 양산 시작, 일부 계약 체결 중</li> </ul>
서진시스템	178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북미 ESS 프로젝트 정상화로 인해 실적 성장 본격화되는 사이클 진입 예상</li> <li>텍사스 공장의 2026년 상반기 가동, 국내외 ESS 수주 및 매출 확대 전망</li> </ul>
SK이터닉스	475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2월 미국 텍사스 100MW규모 ESS 설비 상업 운전 시작</li> <li>2029년까지 미국 내 ESS 운영 규모를 900MW까지 확대할 계획</li> </ul>
한중엔시에스	107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190억원 프레스 설비 투자, 미국 인디애나주 ESS 생산 거점 300억원대 규모의 출자 완료</li> <li>미국 공장은 2025년 공사 시작 → 2027년 1분기 대량 양산 체제 돌입 및 매출 발생 예정</li> </ul>
신성에스티	4161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GE 북미 ESS 사업 확대에 따라 미국 켄터키주 ESS 수냉식 열관리 부품 생산라인 구축 진행 중</li> <li>LC엔솔향 북미 ESS 누적 수주잔고 약 1.1조원, ESS 매출 비중은 2026년 60% → 2027년 70% 예상</li> </ul>
이랜텍	0542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LGE향 LFP ESS 배터리팩 BMS 매출 본격화될 전망</li> <li>체리 EV 프로젝트(8GWh 규모, 약 12만대 분량)로 ESS 외 EV 쪽 안정적 물량 확보</li> </ul>
엠오티	413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고객사인 삼성SDI의 각형 폼팩터 채택으로 ESS 라인 중심으로 발주 재개 중</li> <li>삼성SDI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상업화 라인 공급 이력 기반 전고체 조립-용접 장비 납품 확대 전망</li> </ul>

자료: 하나증권

## 전략자산 희토류

### 국가 전략 자원이 된다면 더욱 희귀

#### check Point

- 미·EU의 탈중국 전략과 국가별 비축 확대에 따른 희토류 공급망 재편 가속
- 전기차·로봇·풍력용 네오디뮴(NdFeB) 자석 수요 급증으로 희토류 수급 불균형 심화
- 베트남·호주·미국 중심 정제·분리 공정 다변화와 신규 프로젝트 등의 시작되는 것 중요
- 중국 수출 통제가 가격 변동의 핵심 변수로 작용

#### ✓ 정의

희토류 산업은 네오디뮴-디스프로슘 등 17종의 희토류 원소를 채굴·정제·분리해 영구자석, 촉매, 연마재 등 핵심 소재로 공급하는 산업이다. 희토류는 전기차 구동모터, 풍력터빈, 로봇 액추에이터 등 고효율 전동화의 필수 소재로, 첨단 제조업의 국가 전략 자원으로 분류된다. 채굴 이후 분리·정련 공정의 기술 난도가 높고 환경 규제가 강해 중국 등 공급망이 특정 국가에 편중되는 특성이 있다. 최근에는 탈중국 공급망 구축과 재활용 기술 확대로 산업 구조가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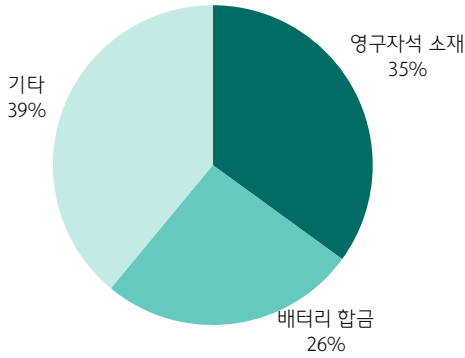
#### ✓ 현황

2026년 희토류 산업은 미·EU의 탈중국 공급망 재편 정책이 본격 이행되며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했다. 전기차 모터와 휴머노이드·협동로봇 액추에이터 수요 확대로 NdFeB 영구자석 중심의 중경희토 수요가 급증하는 반면, 신규 광산 개발 지연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고 있다. 베트남·호주·미국을 중심으로 정제·분리 공정의 지역 다변화가 가속되고, 합작 형태의 업/다운스트림 투자와 장기 구매계약이 늘어나는 추세다.

지정학 리스크는 공급 구조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중국이 희토류를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해 일본·서방 대상 수출 허가제를 강화했고, 중국 희토류 생산 1위 바오터우 정제소 사고까지 겹치며 자동차·전자·항공우주 산업의 공급 차질이 현실화되었다. 이에 미국은 'Project Vault'를 통해 120억 달러 규모의 비축과 텍사스 Round Top 광산, 오클라호마 자석 공장 투자 속도를 붙여 미국 희토류 계열 전략 재고를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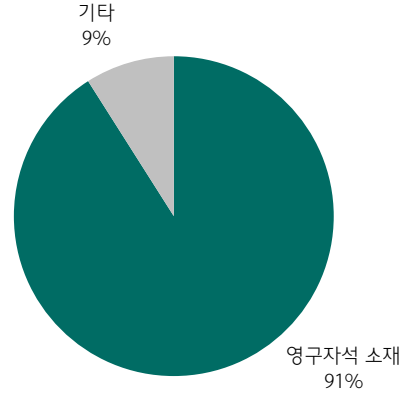
미국 주도의 핵심 광물 무역 블록이 제안되며 EU·호주·캐나다가 참여, 비중국 가격 벤치마크와 최저 가격 보장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은 희토류를 포함한 33종을 핵심 광물 지정하고 2,500억원 펀드, 6,750억원 용자를 사용해 공급망 자립을 추진 중이다. 한편 폐모터·폐배터리 기반 재활용 희토류 비중이 상승하며 원가 안정 변수로 부상했으나, 베트남 수출 금지와 그린란드 매장지 채굴 금지 법안 통과 등 안정적인 탈중국 대안처들이 마땅히 없어 보이는 상황이다. 고내열 자석과 경희토 대체 소재 개발 경쟁이 심화되며, 제련 역량도 국가별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 글로벌 희토류 소비(Volume 기준)



주: 기타(CMP·연마재, 특수 합금용, 배기가스 촉매, 디스플레이 등)  
 자료: CITICS Research, 하나증권

### 글로벌 희토류 소비(Value 기준)



자료: CITICS Research, 하나증권

### 희토류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고려아연	010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에 약 11조원을 투자해 비철·전락광물 제련소를 짓는 프로젝트 추진</li> <li>미 정부와 투자·금융 지원 약정을 맺고 13개 핵심 광물 중 10여 개를 현지에서 생산하는 '동맹국 제련허브'를 목표</li> </ul>
LS에코에너지	2296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베트남 호찌민 생산법인(LSCV)에 희토류 금속화 설비를 구축하고, 광산업체로부터 공급받은 희토류 산화물을 정련해 희토류 금속을 생산할 계획</li> <li>희토류 금속 사업을 통한 중장기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것으로, 투자 규모는 약 285억 원</li> </ul>
제이에스링크	1271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말레이시아에 1920억 원 규모 희토류 '수퍼자석 공장' 추진</li> <li>이미 토지를 구입했으며 운영을 시작하기 위한 작업 중</li> </ul>
노바텍	285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희토류 영구자석 수직계열화(광산·정제·가공) 추진과 Mn-Bi 비희토류 자석 개발 중</li> <li>베트남·라오스 MOU 기반 공급 안정화, 2030년까지 시장 점유율 확대 노력</li> </ul>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포스코인터내셔널이 글로벌 자동차 메이커로부터 수주한 희토류 영구자석 공급 계약에 따라 자원 개발 및 북미 생산 공장 추진</li> <li>2024년 3월 북미 글로벌 완성차 기업과 7천700t(약 9천억원) 규모의 영구자석을 2026년부터 2031년까지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유럽 프리미엄 완성차 브랜드와는 2025년부터 2034년까지 800t(약 2천600억원) 규모의 영구자석 공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음</li> </ul>
성림첨단산업	비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구·경북 지역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기업(24년 기준 연간 1천톤 생산 가능)</li> <li>정부가 희토류 공급망 종합 대책을 성림첨단산업에서 발표</li> </ul>
LS에코첨단소재	비상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LS케이블 계열 공장이 희토류 금속화 추진. 중국 의존 낮춘 공급망 구축</li> <li>희토류 금속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베트남에 약 2,100만 달러 규모의 대규모 투자 결정</li> </ul>

자료: 하나증권

## 전략자산 방산

### 핵심 부품 국산화와 무인, 지능형 무기체계 고도화의 원년

#### check Point

- 러-우 전쟁 이후 유럽/중동/아시아 지역 군비 확충이 장기 정책으로 고착화되고 있음
- 단기 분쟁 이슈가 아니라, 국가 안보 환경의 상시적 불확실성이 방산 수요를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방산은 일회성 무기 도입이 아닌, 장기간에 걸친 체계 구축·보완·업그레이드 산업으로 변화 중
- 전쟁 양상은 대규모 병력 충돌에서 드론, 미사일, 위성, 전자전, 사이버전이 결합된 다층 전장으로 진화
- 방산은 이제 반도체·소프트웨어·통신·AI와 깊게 결합된 첨단 시스템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음

#### ✓ 정의

방산은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무기체계, 군수 장비, 정보·통신·감시·정찰 시스템 등을 개발·생산·유지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전통적으로는 전차, 항공기, 함정, 포병 등 물리적 전력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미사일 방어, 드론, 전자전, 위성, 사이버 방어 등 비대칭 전력과 네트워크 중심 전력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방산 산업은 기술 검증, 장기간의 시험·운용, 엄격한 규제와 보안 요건을 동반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매우 높고, 한번 채택된 체계는 수십 년간 운용되는 특성을 가진다. 또한 방산은 개발-양산-운용-정비(MRO)-성능개량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사업 구조를 가진다. 이에 따라 수주 잔고가 길고, 매출 가시성이 높으며, 정치·외교 관계와도 밀접하게 연동된다. 이러한 특성은 방산을 여타 제조업과 구별되는 독립적인 산업으로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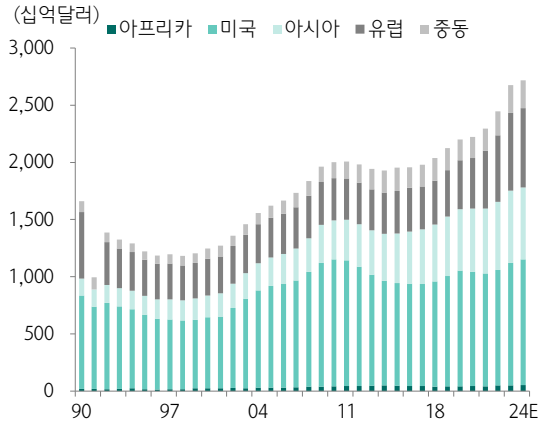
#### ✓ 현황

글로벌 방산 시장은 국방비 증액과 함께 장기적인 성장 국면에 진입했다. 특히 유럽은 재무장 국면에 들어섰고, 중동과 아시아는 기존 전력의 현대화와 미사일·방공 체계 보강에 집중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미사일 방어, 드론 대응, 정밀 유도 무기, 전자전 장비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방산 수요는 단기 경기 변동과 무관하게 유지되며, 오히려 위기 상황에서 가속되는 특성을 보인다.

최근에는 방산 산업 내에서도 세부 영역별로 성장 속도의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형 플랫폼 중심 업체는 안정적인 수주 잔고를 기반으로 장기 성장을 이어가는 반면, 전자전, 센서, 유도, 통신, 특수소재 등 하위 밸류체인에서는 기술 전문 기업의 중요성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 특히 드론 확산과 미사일 위협 증대로 인해 레이더, RF, GaN 기반 전력 반도체, 복합 소재, 정밀 광학 등 첨단 부품의 전략적 가치가 부각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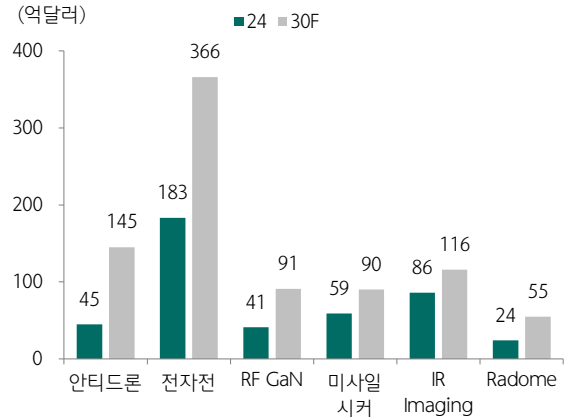
중장기적으로 방산 산업은 '양산 중심 산업'에서 '지속적 업그레이드 산업'으로 성격이 변화할 가능성이 크다. 무기 체계는 빠르게 진화하는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소프트웨어, 센서, 통신 모듈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성능 개량이 요구되며, 이에 따라 방산 기업의 경쟁력은 초기 개발 능력뿐 아니라, 체계 통합과 장기 운용 지원 능력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방산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환경에서 가장 높은 수요 가시성과 기술 진입장벽을 동시에 보유한 전략 산업으로 자리 잡고 있다.

### 지역별 방위비 지출액 추이



자료: SIPRI, 하나증권

### New-Era 첨단 방산 체계 시장 전망



자료: 하나증권 취합

### 방산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웨이비스	289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GaN RF 반도체 칩 양산 기술을 확보하며 방산, 안티드론, 우주항공 등의 산업으로 공급 확대 중</li> <li>글로벌 무기체계 프로젝트 추가 수주 및 안티드론 체계 레퍼런스를 기반으로 해외 매출 확대가 예상</li> </ul>
센서뷰	321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나노 소재 기반의 차폐 기술은 우주항공, 방산 부문의 전장 고사양 추세로 적용처 확대 중</li> <li>MSAM(중고도 방호체계) 추가 수주, LAMD(장사정포 요격체계) 계약 등 방산 부문이 실적 견인할 전망</li> </ul>
그린광학	0015G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도무기 탐색기, 광학, 레이저 기반 무기를 개발해 LIG넥스원, 한화시스템 등에 공급 중</li> <li>스텔스기와 아이언돔 미사일 등에 사용되는 적외선광학 부품의 소재인 ZnS 양산확대로 매출 성장 기대</li> </ul>
제노코	3613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위산업 핵심 부품 제조 국내 주요 업체</li> <li>특히, 항공기 전기/전자 부품 국산화율은 16%에 불과하여 국산화 추진에 따른 수혜가 예상</li> </ul>
에이지브이엠	2953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티타늄 합금, 스테인리스강, 스퍼터링 타겟 등 첨단 소재를 바탕으로 방산 업종 제품 공급</li> <li>이스라엘 글로벌 방산 기업 및 국내 방산 기업의 소재 국산화로 물량 확대 예상</li> </ul>

자료: 하나증권

## 소비재 중국소비

### 차이나는 규모 때문에 어쩔수가 없다

#### check Point

- 중국 경기 부양과 소비 진작책 재개에 따른 소비 반등 시그널들이 확인되지만 아직은 가성비 소비 위주
- 온라인 플랫폼의 현지화와 애국 소비 확대로 글로벌 브랜드 생존하기 어려운 상황
- 화장품·여행·의료미용 중심 회복, 주류·면세는 규제와 재고 부담으로 회복 속도 더딘 모습
- Z세대 취향 기반 라이브커머스·숏폼 판매가 핵심 채널로 부상, 데이터 마케팅 경쟁 심화

#### ✓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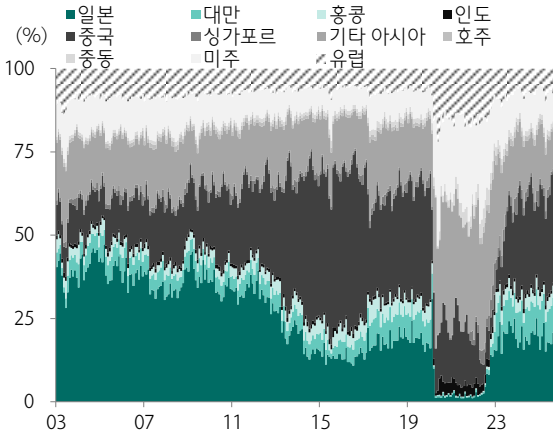
중국소비 산업은 중국 내 개인 소비 지출을 기반으로 화장품, 패션, 식음료, 여행레저, 의료미용 등 생활 밀착형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소득 수준 상승과 도시화, 디지털 플랫폼 확산에 따라 온라인·모바일 중심의 유통 구조로 빠르게 전환되어 왔다. 최근에는 애국 소비와 가성비 추구, 프리미엄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며 소비 패턴이 다층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정책 부양과 규제 환경, 플랫폼 트렌드 변화가 수요 변동을 좌우하는 대표적인 내수 주도 산업이다.

#### ✓ 현황

중국 소비 산업은 경제 불확실성과 정책 부양이 교차하며 변동성이 확대된 국면이다. 주택 시장 약세와 고용 불안으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며 가계 지출이 위축되었다. 다만 상위 중산층 확대와 인바운드 관광 회복에 힘입어 프리미엄 럭셔리와 서비스 부문은 상대적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 정책 측면에서는 15차 5개년 계획(2026~2030)이 소비 촉진과 내수 중심 성장, 전략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제시했다. 유럽·호주·한국 등 대상 비자 면제 확대에 따른 관광 유입이 가시화되며 스포츠 의류·면세·외식 등 연관 소비 회복이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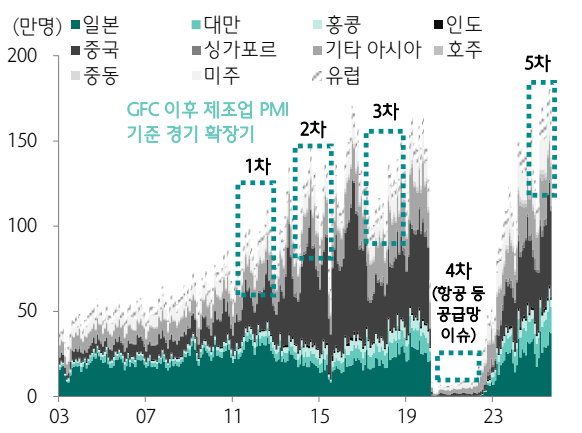
소비 트렌드는 웰니스와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유기식품·기능성 음료·럭셔리 웰니스 수요가 증가하고, 라이브커머스와 숏폼 기반 판매가 표준 채널로 정착했다. 중국 소비자의 소셜미디어 구매 경험률은 글로벌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단기적으로는 부동산 경기와 고용 여건이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내수 순환 중심의 구조적 재편이 예상된다. 미중 지정학 긴장과 규제 변화는 브랜드 전략 재조정과 M&A 확대를 촉진하는데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 소비가 본격적으로 반등할 것이라는 시그널이 나타나기 전에 글로벌 재화 재고 사이클과 제조업 경제 반등에 선행지표로서 주목한다.

### 국내 입국자 국가별 비중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국가별 입국자 추이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중국소비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GS피엔엘	4997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관광객 증가와 한일령 반사이익으로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호텔 리오프닝·ADR 상승 기대</li> <li>고급 호텔에 대한 외국인 숙박 수요가 높아지면서 2026년 실적 본격 성장 전망</li> </ul>
파라다이스	034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VIP·MASS 회복과 2026년 새 호텔 등 개장으로 복합리조트 실적 성장 가속화</li> <li>중국 단체 무비자·한일령 효과로 카지노 Top/Bottom 라인 성장 예고</li> </ul>
롯데관광개발	0323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제주 드림타워 중국 관광객 무비자·직항 노선 확대 수혜로 카지노·호텔 매출 급증</li> <li>중일 갈등 반사이익과 VIP 중심 고성장으로 2026년 실적 대폭 개선 전망</li> </ul>
한스바이오메드	0425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ECM 스킨부스터 '셀르디엠' 국내·일본 매출 호조와 중국 동종골 이식재 수출 본격화</li> <li>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허가로 동종골 이식재 수출 개시</li> </ul>
파마리서치	214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쥘란 글로벌 수출 성장과 중국 유커 무비자의료관광 증가로 내수·수출 동반 호조</li> <li>2026년 중국 현지 생산·유럽 진출 본격화로 K-뷰티 고성장 지속 전망</li> </ul>
엘앤씨바이오	290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리투오 스킨부스터 '폼절템' 열풍과 중국 NMPA 승인 임박으로 2026년 중국 매출 100억원 이상 기대</li> <li>메가덤·리투오 라인업 확대 및 중국 전역 유통망 구축으로 사상 최대 실적·글로벌 성장 가속 전망</li> </ul>

자료: 하나증권

소비재

## Fandom 소비

### Fandom은 하방이 있다

#### check Point

- 팬덤 소비력에 힘입어 굿즈·공연·커뮤니티를 연계한 다층 수익 구조 확장
- 한정판·드롭 판매 + 구독 멤버십 결합으로 반복 구매와 락인 효과 강화
- 숏폼·라이브커머스 기반의 참여형 소비 확대로 팬 주도 기획·공동 제작 증가
- 글로벌 플랫폼 연동과 2차 창작 생태계 확대로 국경 초월 팬덤 경제 가속

#### ✓ 정의

팬덤소비 산업은 특정 아티스트·콘텐츠·브랜드에 대한 강한 애호를 기반으로 굿즈, 공연, 멤버십, 커뮤니티 서비스 등 연관 상품과 경험을 소비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단순한 제품 구매를 넘어 정체성 표현과 참여형 활동이 결합된 관계 경제의 성격을 지닌다. 디지털 플랫폼과 숏폼 미디어 확산으로 팬 주도 기획과 공동 제작이 늘어나며 수익 구조가 다층화되고 있다. 글로벌 팬덤의 네트워크화로 국경을 초월한 확장성이 핵심 경쟁력으로 부각된다.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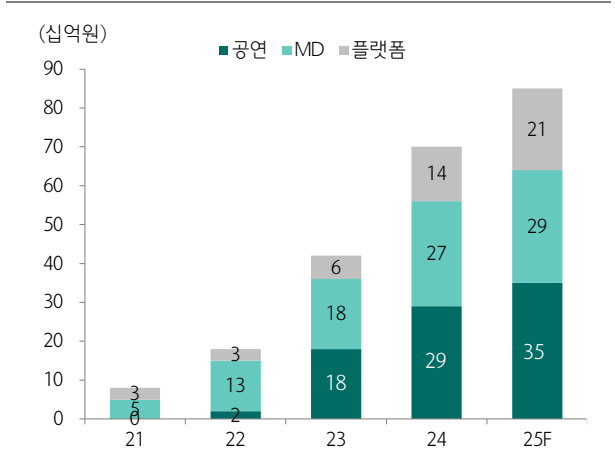
2026년 팬덤소비 산업은 BTS라는 글로벌 K-Pop 아티스트 컴백 모멘텀을 추진력 삼아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BTS 풀그룹 컴백을 계기로 K-Pop 업계 저력이 발휘될 것이라는 시장 기대감이 존재한다. 오프라인에서는 팬덤 팝업 스토어가 채널로 부상했다. 현대백화점과 신세계 K-Pop 팝업이 외국인 쇼핑객을 증가시키고 있고, NCT WISH-Zootopia 협업 사례처럼 팬 경험과 소비를 직접 연결하는 마케팅이 확산되고 있다. 팬덤 로열티가 실제 구매 데이터로 검증되며 유통사의 팬덤 유치 경쟁도 치열해 지고 있다. 디지털 영역에서는 Dear U Bubble과 Weverse가 커뮤니케이션 허브로 자리 잡으며 관련 기업의 이익이 빠르게 성장 중이다. AI·VR 툴이 새로운 채널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고, 팬 참여형 콘텐츠 제작이 확대되며 플랫폼 의존도가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최근에는 로봇과의 콜라보 공연, 홀로그램 등 새로운 시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MD 리세일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Stray Kids·ATEEZ를 중심으로 미국에서 앨범 리세일 시장이 활성화되며 K-Merchandise가 인기를 끌고 있다. 20~30대 구매 증가와 함께 팬덤 연령이 25세 이상 성인층으로 다변화되며 소비 저변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글로벌 공연, 콘텐츠 흥행 지속성, IP 관리 역량이 2026년 성장의 핵심 포인트이다.

### BTS 월드투어 일정

날짜	도시	날짜	도시
2026.04.09, 11-12	Goyang	2026.08.22-23	Toronto
2026.04.17-18	Tokyo	2026.08.27-28	Chicago
2026.04.25-26	Tampa	2026.09.01-02, 05-06	Los Angeles
2026.05.02-03	El Paso	2026.10.02-03	Bogota
2026.05.07, 09-10	Mexico City	2026.10.09-10	Lima
2026.05.16-17	Stanford	2026.10.16-17	Santiago
2026.05.23-24, 27	Las Vegas	2026.10.23-24	Buenos Aires
2026.06.12-13	Busan	2026.10.28, 30-31	Sao Paulo
2026.06.26-27	Madrid	2026.11.19, 21-22	Kaohsiung
2026.07.01-02	Brussels	2026.12.03, 05-06	Bangkok
2026.07.06-07	London	2026.12.12-13	Kuala Lumpur
2026.07.11-12	Munich	2026.12.17, 19-20, 22	Singapore
2026.07.17-18	Paris	2026.12.26-27	Jakarta
2026.08.01-02	East Rutherford	2027.02.12-13	Melbourne
2026.08.05-06	Foxborough	2027.02.20-21	Sydney
2026.08.10-11	Baltimore	2027.03.04, 06-07	Hong Kong
2026.08.15-16	Arlington	2027.03.13-14	Manila

자료: 하이브, 하나증권

### 노머스 부문별 매출 추이



자료: 하나증권

### Fandom 소비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하이브	3528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하이브 2.0 전략 실현의 해로 희소성 기반 팬덤 경험-온오프 통합 모델 혁신 추구</li> <li>BTS 컴백으로 엔터테인먼트 합산 영업이익의 급증 전망</li> </ul>
노머스	473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국 위챗 프롬 플랫폼 론칭으로 2026년 중국 시장 본격 진출</li> <li>공연·MD·플랫폼 등 다각화된 BM 구축은 완료. 해외 공연 확대는 Top Line Driver로 작용</li> </ul>
디어유	376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팬덤 플랫폼 버블 구독 모델 강화와 SM 연계 IP 활용으로 팬덤 충성도·소비 확대</li> <li>현지 맞춤형 플랫폼 출시하며 글로벌 K팝 구독자가 확대되는 추세</li> </ul>
현대백화점	0699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팝·K컬처 팝업스토어·굿즈 존 확대와 글로벌 팬덤 타깃 특화 매장으로 백화점 내 팬덤 소비 증가</li> <li>2026년 팬덤 마케팅 강화와 오프라인 경험 중심 전략으로 면세·유통 시너지 기대</li> </ul>
YG PLUS	0372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YG IP 기반 MD·커머스·음원 유통 강화와 글로벌 팬덤 결제 혁신 추진</li> <li>블랙핑크 등 아티스트 활동 재개로 인한 실적 성장세</li> </ul>
삼양식품	003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불닭볶음면 글로벌 팬덤(특히 BTS·K팝 연계) 열풍 지속으로 해외 매출 비중 80% 돌파</li> <li>2026년 K푸드 팬덤 소비 확대와 신제품·채널 다각화로 사상 최대 실적 경신 가능</li> </ul>

자료: 하나증권

소비재

## Trendy

## 트렌디에서 볼륨 스테디로 넘어갈 때 기회

## check Point

- 브랜드 IP 기반의 경험 소비 확대, 패션·뷰티·아트의 경계가 융합되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화 가속
- 중국·동남아 리오프닝 수요와 K-콘텐츠 연계로 글로벌 팬덤 매출의 성장 본격화
- 경매·리셀·한정판 중심의 희소성 비즈니스 확대로 유의미한 브랜드 구축이 업계 화두
- 양극화되는 소비 패턴 속에서 트렌디 소비도 고객군이 명확해지는 모습 확인

## ✓ 정의

트렌디 산업은 패션·뷰티·아트·라이프스타일 등 유행과 감성 가치를 기반으로 소비자 경험을 창출하는 산업을 의미한다. 기능적 효용보다 브랜드 스토리, 희소성, 문화적 공감이 구매 의사결정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한다. 디지털 플랫폼과 팬덤 경제의 확산으로 D2C·리셀·경매 등 유통 방식이 다층화되고, 데이터 기반 상품 기획이 경쟁력으로 부상했다. 유행 주기가 짧고 글로벌 문화 트렌드에 민감해 콘텐츠 연계와 채널 운영 역량이 성패를 좌우하는 특징을 지닌다.

## ✓ 현황

2026년 트렌디 산업은 경험 소비와 팬덤 경제가 결합되며 플랫폼 중심 구조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패션·뷰티·아트의 경계가 약화되고 브랜드 IP를 매개로 한 공간·콘텐츠 비즈니스가 확대되며, 단순 제품 판매보다 스토리와 희소성을 결합한 수익 모델이 주류로 자리 잡았다. 에이피알, 에이유브랜즈, 감성코퍼레이션 등이 트렌드를 선도하거나, 트렌드의 흐름 속에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다. 가격, 연령, 개성 등을 중심으로 트렌드가 형성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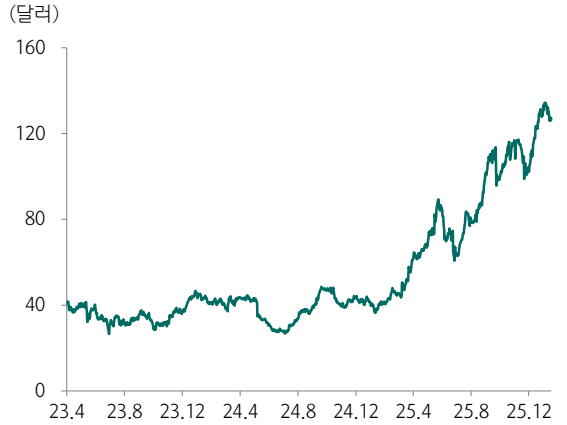
최근 Netflix, SNS, GenZ 플랫폼 등에서 생성하는 트렌드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은 두바이 쏘독 쿠키(‘두쏘쿠키’) 트렌드다. 2H24년 정점으로 끝날 것이라고 봤던 두바이 초콜릿 트렌드가 4Q25부터 두바이 쏘독 쿠키(‘두쏘쿠키’)로 부활했다. 초콜릿은 두바이의 부를 연상시키는 골든 피스타치오 페이스트와 독특한 카다이프의 식감으로 인기를 몰았지만, 2-3만원대의 높은 가격이 흥행 추세의 저항선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대부분 1만원 이하의 가격으로 출시된 ‘두쏘쿠키’는 스몰 럭셔리 트렌드와 결합되어 다시 폭발적인 소비자 반응을 일으키고 있다. ‘몬트쿠키’라는 수제 쿠키 전문점에서 1H25 오리지널 레시피를 공개하면서 지금은 국내 베이커리/커피 프랜차이즈뿐만 아니라 여러 음식점의 식후 디저트로 확산되는 추세다. 국내에서 개발된 두쏘쿠키가 Netflix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와 ME 장원영 글로벌 영향력에 힘입어 최근 두바이/미국/일본/중국서 판매가 개시되는 등 글로벌 바이럴이 시작될 가능성에 주목한다.

**에이유브랜즈 (60→ 20만원대 코트 출시 계획)**



자료: 29cm, Montgomery, 에이유브랜즈, 하나증권

**Tapestry 주가(Masstige 등 증저가 라인 소비 증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Trendy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진도	0887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피·기성복 브랜드 파워로 겨울 시즌 매출 반등 및 실적 턴어라운드 모멘텀</li> <li>신규 브랜드 백화점·온라인 확대와 트렌드 맞춤 캐주얼·럭셔리 투트랙 전략</li> </ul>
CJ	0010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리브영의 중국 반일령·준절 수혜 및 글로벌 플랫폼 도약으로 2026년 1분기 실적 모멘텀 보유</li> <li>한중 관계 개선·인바운드 관광 증가와 세포라 협업 등으로 인한 해외 진출 성공 시 기업가치 재평가</li> </ul>
에이유브랜즈	4810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패션·잡화 팬덤 중심 마케팅과 팝업·온라인 커뮤니티 활용으로 MZ세대 충성 소비층 구축</li> <li>2026년 브랜드 확장과 팬덤 기반 고부가 상품 전략으로 안정적 성장·재평가 모멘텀 기대</li> </ul>
흥국에프엔비	1899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Netflix 안성재 셰프의 ‘두쫘쿠’ 영상으로 다시 SNS 바이럴 시작</li> <li>두쫘쿠의 원재료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를 해외에서 물량 확보 완료</li> </ul>
감성코퍼레이션	0366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Snow Peak 자체 원단·기능성 제품 경쟁력으로 중국·아시아 해외 시장 본격 진출</li> <li>2026년 중국 수출 기대와 D2C·친환경 라인 강화로 글로벌 브랜드 도약 노력</li> </ul>
서울옥션	063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6년 미술시장 조용한 회복 국면, 블루칩·고가 작품 중심 전략에 주목할 시점</li> <li>검증된 작가의 작품 출품 전략으로 경매 시장 점유율 확대 및 주가 상승 기대</li> </ul>
케이옥션	102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시장 반등 신호 속 경쟁사 대비 낙찰률 우위 보이고 있으며, 안정적 미술품 소싱이 경쟁력</li> <li>2026년 초 메이저 경매 성과는 실적 개선 시그널일 가능성 높음</li> </ul>
에이피알	278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25년 매출 1.5조 돌파하고 해외 비중을 80%로 확대 후 2026년 2조원 이상 매출액 목표 제시</li> <li>메디큐브 및 뷰티 디바이스 미국·일본·유럽 3개 지역 성장과 신제품·온오프라인 채널 강화 예상</li> </ul>
제이에스코퍼레이션	194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그랜드하얏트서울 운영으로 내외국인 관광수요 회복·호텔사업 실적 개선</li> <li>본업 패션 OEM·ODM 사업은 안정적으로 성장 중</li> </ul>

자료: 하나증권

## 정부정책 인공지능(AI)

### 전 산업의 표준 AI, 산업 지능화의 핵심

#### check Point

- 정부의 'AI 3대 강국' 비전 아래 AI 생태계 구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 진행
- K-엔비디아 육성, 국가 AI 컴퓨팅 센터 등 메가 프로젝트 통한 데이터센터, 전력망 전환 투자 촉진
- 피지컬 AI 토대로 공정 최적화 및 고부가가치 구조 재배치 등 산업 지능화 추진으로 제조업 AX 가속화
- AI 기반 지능형 공정 전환을 통해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장기 성장 기조로 연결

#### ✓ 정의

인공지능(AI)은 데이터 학습 및 추론을 수행하는 알고리즘과 이를 구동하기 위한 연산 인프라, 그리고 실제 산업 현장에 적용되는 응용 서비스를 통칭한다. AI는 데이터로부터 패턴을 학습(Training)하고 학습된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의사결정하는 추론(Inference)으로 구현된다. 컴퓨팅 단계에서 출발해 소프트웨어로 표준화되며 응용(자동화, 산업별 최적화) 단계로 확산된다. 국내 AI 산업은 정부의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조 아래 단순한 소프트웨어를 넘어 전방 산업의 생산성을 혁신하는 '산업 지능화의 핵심 엔진'으로 작용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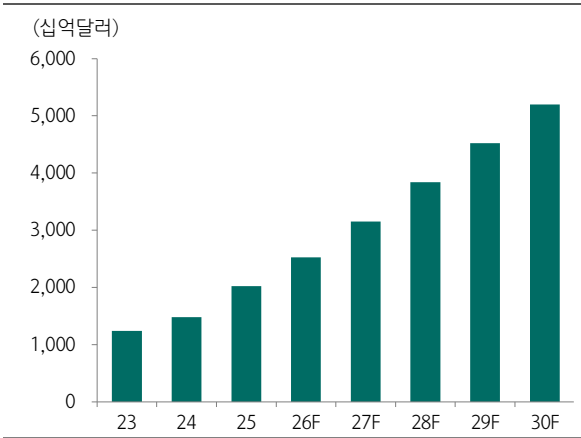
#### ✓ 현황

AI가 전 산업의 표준으로 자리잡으면서 AI와 반도체 업종은 전방위적인 낙수효과를 통해 시장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 글로벌 AI 지출 규모는 2023년 1.2조 달러에서 2030년 5.2조 달러로 연평균 30%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부는 AI 생태계 구축과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AI 3대 강국'이라는 국가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AI 지원 예산에 총 10.1조원을 조성했다.

정부의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서 AI는 반도체와 함께 국가전략산업 핵심으로 분류되었으며 국민성장편드를 통해 올해 AI에 6조원, 반도체에 4.2조원 등이 AI 밸류체인 전반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는 K-엔비디아 육성 및 국가 AI 컴퓨팅 센터와 같은 메가 프로젝트로 구체화되면서 데이터센터·전력망·클러스터 등 물리적 인프라와 결합되는 전환 투자를 촉진한다. 이러한 정책 기조는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소부장 및 인프라 기업들의 실적 가시성을 확보해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첨단전략산업의 핵심은 제조업의 AI 전환(AX)이다. 이는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수준을 넘어 품질 관리, 생산 공정 최적화, 수요 예측 등에서 AI를 이식하여 고부가가치 구조로 재배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CES 2026에서 부각된 '피지컬 AI(Physical AI)'는 서버를 거치지 않고 현장에서 데이터를 즉각 처리하는 로봇 및 자동화 설비의 성능을 비약적으로 개선하면서 AX의 기술적 토대가 된다. 지능형 공정 전환은 기업의 CAPEX 투자를 고효율 구조 개선으로 유도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중장기 성장 기조로 연결될 전망이다.

### 글로벌 AI 시장 지출 규모 추이 및 전망



자료: Gartner, 하나증권

### 2026년 정부 AI 생태계 육성 예산

부문	규모(억원)	핵심 내용
기술개발 (R&D)	2.9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차세대 AI 반도체 개발
인프라 구축	2.5	고성능 GPU 3.5만장 확보,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산업별 AI 전환 (AX)	2.4	제조, 의료, 국방 등 전 산업에 AI 도입 지원
인재 양성	1.4	AI 전문 인력 20만명 양성 (2030년까지)
생태계 및 기타	0.9	AI 혁신 펀드 조성, 스타트업 육성

자료: 언론보도, 하나증권

### 인공지능(AI)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삼성전자	005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 HBM4 시장의 본격적인 양산과 빅테크 기업 대상 자율주행/AI칩 파운드리 수주 확대 모멘텀</li> <li>HBM 점유율 회복에 따른 메모리 부문 수익성 극대화과 파운드리 부문 수주 기대감 존재</li> </ul>
SK하이닉스	000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BM 시장 점유율 1위. 엔비디아와의 견고한 파트너십, 메모리 슈퍼사이클 수혜 기대감</li> <li>AI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공급을 상회하면서 실적 상향 모멘텀 높음</li> </ul>
삼성전기	0091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컴포넌트 및 패키지 솔루션의 AI 서버 매출 비중 확대, 휴머노이드 로봇용 부품 공급 등 기대</li> <li>차세대 AI 가속기 기반 서버 랙에 MLCC 탑재량 급증한다는 점 감안시 하반기 타이트한 수급 지속</li> </ul>
이수퍼타시스	0076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AI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용 고다층 기판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주</li> <li>강한 AI 인프라 투자 지속. 26년 다중적층 MLB 양산 공급 본격화로 Blended ASP 대폭 상승 기대</li> </ul>
오른엠택테크놀로지	394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엔비디아 육성 정책 및 AI 반도체 파운드리 사업과 연계된 핵심 IP 보유</li> <li>온디바이스 AI 칩 설계의 필수 파트너. 정부의 온디바이스 AI 지원에 따른 수혜 기대</li> </ul>
가온칩스	399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시스템 반도체 설계 기업. 해외 시장 확대와 선단 공정 중심 사업 구조 강화</li> <li>커스텀 AI 칩 개발 주도. 정부의 첨단 AI 반도체 파운드리 육성 정책에 따른 수요 급증의 수혜</li> </ul>

자료: 하나증권

## 정부정책 산업재편

### 구조적 위기를 넘어 밸류에이션 정상화로

#### check Point

- 중국발 공급과잉과 탄소 규제(CBAM) 등 구조적 위기에 대응한 정부 주도의 선제적 사업 재편 본격화
- 철강 업종, 그린스틸(저탄소 공정) 전환과 범용재 축소, 고부가 특수강 중심의 Mix 개선이 핵심
- 석유화학 업종, NCC 설비의 감축 및 통폐합을 통해 공급 과잉 해소와 스페셜티 전환 가속
- 산업재편 테마, 한계 사업 정리와 체질 개선을 통해 저평가 국면 탈피 및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감

#### ✓ 정의

산업재편은 과잉 공급과 수익성 저하, 글로벌 규제 압박에 직면한 전통 산업군 대상 구조조정(감산·통합·퇴출)과 고부가·첨단화(투자·R&D·공정혁신), 공급망 재정비를 통해 산업의 체질을 바꾸는 정책 주도형 구조변화를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을 넘어 과잉 구간을 해소하여 업종의 하방 경직성을 확보하고 수익성 개선을 도와준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업종은 탄소중립, 공급망 재편 속에서 생존과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구조 변화 단계에 진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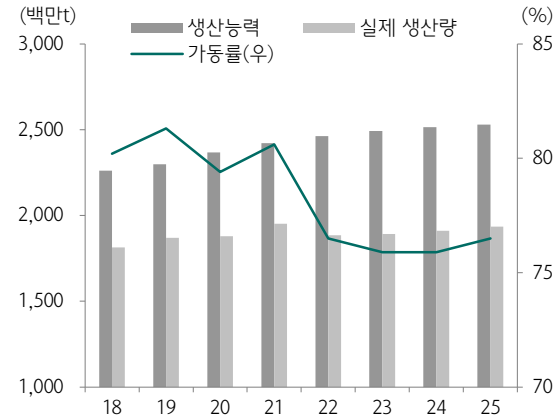
#### ✓ 현황

정부는 중국발 공급 과잉과 글로벌 보호무역 심화로 장기 침체 국면에 있는 산업군 대상으로 산업재편에 대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철강 산업의 K-스틸법 제정 및 저탄소 전환, 석유화학 산업의 사업 재편 승인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은 기업들이 노후 설비를 폐쇄하고 차세대 공정으로 전환하는데 따른 부담을 완화해주며 투자자들에게는 산업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와 밸류에이션 정상화 기대감을 높여준다.

정부의 정책 의지와 더불어 과잉 공급의 진원지였던 중국이 환경 규제와 수익성 방어를 위해 감산 기조로 선회하면서 수급 밸런스가 개선된 점도 긍정적이다. 석유화학 산업은 전체 NCC(나프타분해설비) 설비 1,470만 톤 중 약 25%에 해당하는 370만 톤 규모의 감축 및 통폐합으로 수급 밸런스 정상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철강 산업은 중국의 조강 생산량 조절로 공급 과잉 완화를 위한 설비 재편이 이루어지면서 무분별한 양적 경쟁에서 벗어나 수익성 개선을 위한 패러다임 전환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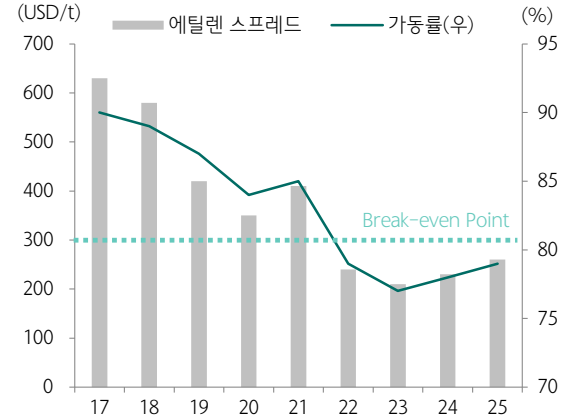
기술적 고도화를 통한 체질 개선 또한 산업재편의 핵심 동력이다. 철강 업계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수소환원제철 등 그린스틸 공정 도입과 고부가 특수강 제품 비중을 확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업계는 범용 플라스틱 의존도를 낮추고 고기능성 스페셜티 소재와 친환경 재활용 소재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며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 글로벌 철강 생산 능력, 생산량 및 가동률 추이



주: OECD Steelmaking Capacity 및 World Steel Association 기준  
 자료: OECD, 하나증권

### 글로벌 에틸렌 스프레드 및 가동률 추이



주: 스프레드는 연평균 기준  
 자료: S&P Global Commodity Insights, 하나증권

### 산업재편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POSCO홀딩스	005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소환원제철 등 그린스틸 전환 선도 및 저수익 설비 효율화 진행</li> <li>이차전지 소재 등 비철강 부문 강화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li> </ul>
현대제철	004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기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저탄소 제품 라인업 확대</li> <li>붕형강 등 건설 경기 민감 부문의 수익성 방어 및 고부가 판재류 비중 확대</li> </ul>
세아베스틸지주	0014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주력 자회사뿐 아니라 신규 사업들의 높은 성장성 보유</li> <li>세아베스틸, 특수강 공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스프레드 확대 추진중</li> </ul>
롯데케미칼	0111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주력 범용 석유화학 사업 매각 및 NCC 설비 효율화 추진</li> <li>수소, 배터리 소재 등 신성장 동력 확보를 통한 포트폴리오 재편 가속</li> </ul>
금호석유	0117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성고무 등 고수익 스페셜티 제품 위주의 탄탄한 포트폴리오 보유</li> <li>범용 석유화학 불황에도 상대적으로 건조한 실적 안정성 부각</li> </ul>
대안유화	0066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산 NCC 설비 등 보유, 석유화학 업황 턴어라운드 시 탄력적 추가 회복 기대</li> <li>2차전지 분리막용 PE/PP 등 고부가 스페셜티 제품 비중 확대 중</li> </ul>

자료: 하나증권

## 정부정책 코스닥

### 스케일업과 유동성, 신성장 산업의 결합

#### check Point

- 2025년이 코스피 대형주 재평가 원년이었다면 2026년은 코스닥 기술적 스케일업에 주목할 필요
- 금리 안정화로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 내 유동성 환경 개선과 정부 정책 수혜 기대감
- 코스닥 상위 업종인 제약/바이오, 2차전지 바닥 확인 및 업종 모멘텀으로 반등 가능성 관심
- 신성장 산업인 로봇과 우주항공, 반도체 소부장 등 미래 첨단 산업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어

#### ✓ 정의

코스닥(KOSDAQ)은 유망 중소벤처기업들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된 한국의 주식 거래 시장이다. 코스피가 대형주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면 코스닥은 기술력과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성장주, 중소형주로 구성된 지수다.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은 일반기업과 벤처기업, 특례상장기업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코스피 대비 상장 요건이 완화되어 진입 장벽이 낮다는 특징이 있다. 주로 바이오, 2차전지, 로봇,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금리·유동성 변화에 민감해 주가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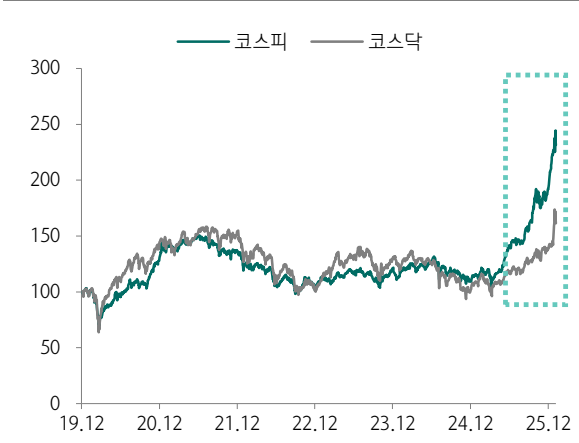
#### ✓ 현황

코스닥 시장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조와 정부 정책이 맞물리면서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2025년이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한 코스피 대형주 재평가의 원년이었다면, 2026년 정부 정책은 코스닥 시장의 기술적 스케일업(Scale-up)과 유동성 공급에 집중되고 있다. 정부의 K-테크 육성 및 IPO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세제 혜택 확대와 스케일업 지원 펀드 조성은 코스피 대비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형주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핵심 트리거로서, 지수의 하방 경직성을 강화하는 동시에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견인한다.

올해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하면서 연기금의 코스닥 비중이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시장 전체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폐지 기준을 강화하면서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상장 폐지 요건 강화와 공시 의무의 엄격한 적용으로 한계 기업을 정리하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방침이다. 다만 건조한 펀더멘탈을 보유한 기업 선별의 중요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변동성 높은 개별 기업에 대한 접근 보다는 코스닥150이나 업종별 ETF 투자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코스닥은 시가총액 상위 업종인 제약/바이오, 2차전지와 미래 성장 산업으로 주목받는 로봇, 실적 기대감 높은 반도체 소부장이 지수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약/바이오는 ADC 및 비만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 고부가 가치 파이프라인의 기술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2차전지는 전기차 캐즘을 지나 북미/유럽형 ESS 수주 확대로 실적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로봇산업은 '피지컬 AI' 시대 휴머노이드 로봇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있으며 반도체 소부장은 HBM4 수요 증가에 따른 낙수 효과를 통해 구조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

### 코스피, 코스닥 지수 수익률 추이



주: 2019.12.30=100 기준  
자료: FnGuide, 하나증권

### 코스닥150지수 TOP20 시가총액 상위 기업

1	2차전지	에코프로	11	바이오	펩트론
2	바이오	알테오젠	12	바이오	원익IPS
3	2차전지	에코프로비엠	13	소부장	이오테크닉스
4	로봇	레인보우로보틱스	14	의료기기	클래시스
5	바이오	삼천당제약	15	바이오	메지온
6	바이오	에이비엘바이오	16	로봇	로보티즈
7	바이오	코오롱티슈진	17	바이오	보로노이
8	소부장	리노공업	18	소부장	HPSP
9	바이오	리가캠바이오	19	바이오	파마리서치
10	바이오	케어젠	20	바이오	디앤디파마텍

주: 2026.2.6일 시가총액 기준  
자료: 하나증권

### 코스닥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에코프로비엠	247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이차전지 양극재 소재 기업. 유럽 헝가리 공장 신규 가동, 전고체 배터리 소재 등 포트폴리오 다변화</li> <li>전기차 캐즘 여파로 올해도 역성장 우려 존재하나 리튬 가격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 방어 기대</li> </ul>
레인보우로보틱스	277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삼성전자의 지분 인수 이후 협동 로봇 및 휴머노이드 기술 협력 구체화할 전망</li> <li>엔비디아 GTC에서 글로벌 로봇 소프트웨어 기술 관련 발표 기대감 존재</li> </ul>
리가캠바이오	1410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올해 안센, MSD 등 글로벌 기업들과 체결한 ADC 파이프라인의 대규모 임상 진행되는 시기</li> <li>글로벌 항암제 시장에서 ADC 분야 독보적인 기술력. 올해 기술 수출 기대감 유효</li> </ul>
리노공업	0584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온디바이스 AI 기기 확산으로 테스트핀과 소켓 고사양화 진행됨에 따라 실적 상향 기대감</li> <li>고성능 반도체 검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신공장 증설 효과 등 기대</li> </ul>
원익IPS	2408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반도체 전공정 장비 업체.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및 메모리 투자 수혜주. ALD 장비 매출 비중 확대</li> <li>HBM4 대응을 위한 DRAM 1c 공정 전환 투자 진행되면서 전공정 장비 수요 증가</li> </ul>
ISC	095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요 GPU 고객의 차세대 제품 테스트 코셋의 ASP 상승, 신규 AI 가속기 및 ASIC 고객사 양산 확대</li> <li>대면적 테스트 소켓 공급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 시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li> </ul>

자료: 하나증권

## 트럼프 정유

### 정제마진 개선 기대 근데 이제 베네수엘라를 곁들인

#### check Point

- 미국의 베네수엘라 원유 시장 투자 확대로 베네수엘라 중질유 생산량 확대 기대
- 베네수엘라 원유 공급 확대 시 미국 원가 절감, 중동의 아시아향 공급 확대 등 영향 기대
- 중동 원유의 아시아향 확대로 OSP 하락 시 국내 정유사 원유 도입 비용 절감으로 이익 개선 전망
- 1월 말 기준 정제마진 12.7 달러로 6주 래 최대치 기록하며 실적 기대감 유효

#### ✓ 정의

정유란 땅속에서 뽑아낸 원유를 끓이고 가공하여 일상에서 쓸 수 있는 제품으로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원유의 종류로는 경질유, 중질유가 있다. 경질유는 끈적임이 적고 맑아 휘발유, 경유 등을 생산, 중질유는 끈적거리고 무거워 중유, 아스팔트 등을 생산한다. 국내에서는 원유 99% 이상을 수입하고 정제해 LPG, 휘발유, 나프타,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등으로 추출한다. 이후 산업용, 수송용 등으로 유통 및 판매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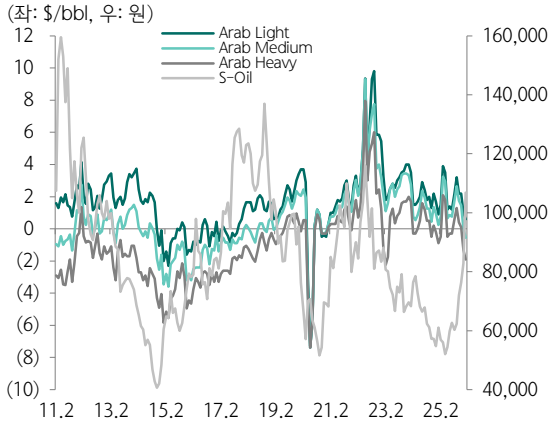
#### ✓ 현황

2026년 1월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 군사 작전에 의해 체포 및 이송됐다.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적극 개입하겠다고 발표했다. 글로벌 1위 원유 매장량(3,030억 배럴)에도 독재 정권에 인프라가 붕괴되면서 생산량은 100만 배럴로 21위에 불과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런 에너지 인프라 환경 재건을 위해 석유 회사들에게 보조금 지급할 수 있다 밝히고 18개월 이내 완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베네수엘라 원유는 초중질유로 굉장히 까다로운 원유다. 채굴 시 희석제 사용 혹은 열을 가하고, 고유황 및 고금속 함유 처리를 위한 전후처리 설비가 필요하는 등 여러 조건들이 붙는다. 그럼에도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시장에 투자할 경우 1) 중국의 원유 조달 차질, 2) 미국 원가 절감 효과 극대화, 3) 중동의 아시아향 공급 확대 등의 영향이 있다. 중국의 베네수엘라산 원유 도입 비중은 5% 내외이나 원유 조달에 차질 생기면서 절대적 원가 우위가 소멸된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을 통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가격 협상력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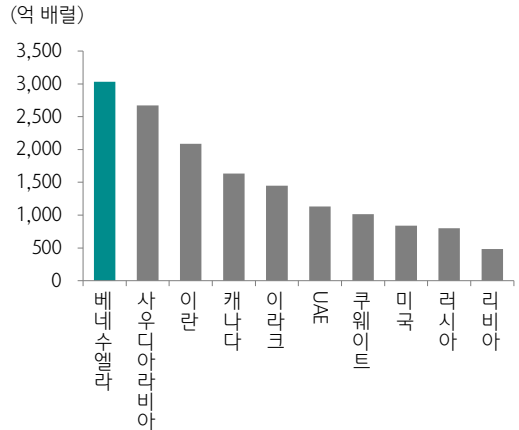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미국으로 향하던 중동 원유가 아시아로 향하면서 OSP(Official Selling Price, 공식판매가격)를 낮추면서 국내 정유사에 수혜가 예상된다. 중동 원유에서 대부분 중질유를 수입하는데 값싼 베네수엘라의 중질유가 수입될 경우 아시아내 중동의 원유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어 OSP를 하향할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정제설비가 부족한 가운데 OSP 하락 시 정제마진 상승이 기대되며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 과거 2015~18년 미국 셰일붐에도 OSP를 내리면서 국내 정유사가 수혜를 입었던 만큼 향후 베네수엘라 원유 이슈에도 충분히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 중동 OSP 추이 & S-Oil 주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글로벌 원유 매장량



자료: Worldometers, 하나증권

### 정유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S-Oil	0109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유 매출이 70% 이상으로 가장 큰 비중 차지하여 정제 마진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li> <li>정유 실적 개선 기대감과 석유화학 시장 전반의 반등 과정에서 샵인PI의 가치 부각 가능성 유효</li> </ul>
GS	078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상장사인 GS칼텍스가 정유 사업 영위하며 매출의 50% 이상 차지하는 지주사</li> <li>GS칼텍스, GS리테일, GS EPS, GS E&amp;R, GS건설, GS글로벌 등 자회사 보유한 지주사로 밸류업통해 저평가 해소 기대</li> </ul>
SK 이노베이션	0967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유 사업 매출 60%로 기업의 캐시카우 역할하며 정제마진 개선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li> <li>한국 최대의 설비 보유해 100달러/톤 마진 개선 시 약 4천억원의 영업이익 개선 가능할 것</li> </ul>

자료: 하나증권

## 트럼프 스테이블코인

### 차세대 빅웨이브, 스테이블코인

#### check Point

- 스테이블코인은 낮은 수수료, 빠른 처리 시간을 장점으로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부각
-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5년 3,000억 달러에서 2028년 2조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기대
-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월간 거래대금이 2024년 7월 대비 4배 이상 성장한 23.4조원 기록
- 지난 6월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후 2월 초 당론 발의 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개화 기대감 유호

#### ✓ 정의

스테이블코인이란 법정화폐, 가상자산, 실물자산 등 준비 자산에 가격을 고정하여 안정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암호화 페를 의미한다. 법정화폐인 달러, 국채 등을 담보로 하는 스테이블코인이 주를 이루며 테더의 USDT, 서클의 USDC가 90% 이상 점유한다. 블록체인 기반 결제로 중개 과정 생략되면서 낮은 수수료와 빠른 처리 시간이 장점으로 차세대 결제 수단으로 주목받는다. 이에 비자, 마스터카드, 스트라이프 등 결제 네트워크에 편입, 월마트, 아마존 등 소매 기업에서 결제 옵션 도입 및 자체 발행 준비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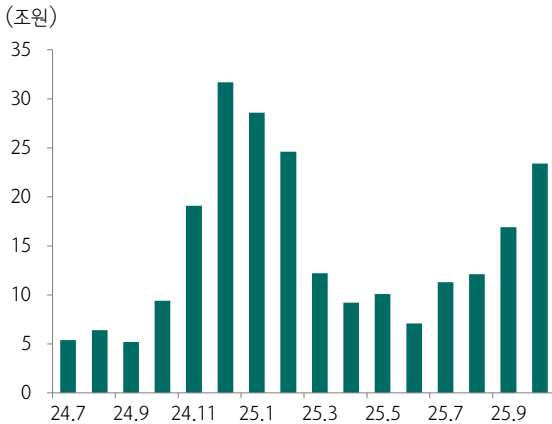
#### ✓ 현황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2024년 2,100억 달러에서 2025년 3,000억 달러로 1년 만에 40% 이상 성장했다. 그리고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20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는 국채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수치다.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99%가 미국 달러에 패킹됐고, 발행사들은 준비금을 미국 단기 국채에 투자하는 만큼 국채 수요를 창출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지니어스 법안'이 법률도 제정됐다. 준비금 요건, 발행사에 대한 감사 의무, 외국계 발행사(테더 등)에 대한 규제 등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켰다. 법률은 제정 후 1년 내인 2026년 7월 18일까지 최종 규칙을 마련해야해 상반기 이후 구체적인 규칙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행정부의 스테이블코인 굴기에 국내에서도 스테이블코인 관심도가 높아진 걸 확인할 수 있다.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월간 거래대금이 2025년 6월 7.1조원에서 10월 23.4조원으로 급등했다. 그리고 지난 6월 디지털자산 기본법 발의됐고 이후 은행 과반지분(50%+1주),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15% 제한 문제에 대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2월 초 법안 당론 발의 목표로 연내 법안 통과 시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 본격 개화가 기대된다. 국내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2030년에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30%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은 법안 통과 전부터 상표권 선점 및 기술 실증에 착수했다. 신한금융은 배달앱 '땡겨요'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범 사업을 준비, 하나금융은 서클과 업무 협약 체결하는 등 신속하게 대응 중이다.

### 국내 스테이블코인 월별 거래 규모



자료: 언론 종합, 하나증권

### 추진 중인 국내 스테이블코인 사업

국내 기업	추진 중인 스테이블코인 사업
하나금융	BNK금융, iM뱅크, SC제일은행과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신한금융	배달 '땡겨요'에 원화 스테이블코인 결제 시범 사업 준비
우리금융	삼성윌렛 내에서 결제, 송금 가능하도록 기술 연동 추진
KB금융카드	스테이블코인과 실생활 결제 연동해 하이브리드 결제 특허 선점
NHN KCP	지난해 6월 KRWPS, KSKOR, KSKRW 등 총 11종의 상표권 출원
네이버페이	지난해 6월 NKRW, KRWZ, KRWNP, NWON, KRNP 등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권 출원. 두나무 합병으로 결제, 거래 인프라 협력 확대

자료: 언론 종합, 하나증권

### 스테이블코인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카카오페이	377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PKRW, KKRW, KRWP, KPKRW, KRWKP 등 18개 스테이블코인 상표권 출원</li> <li>슈퍼윌렛 전략 기반으로 각종 디지털자산 결제, 활용 지원할 예정</li> </ul>
아이티센글로벌	124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국내 1등 금 거래소 보유로 금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확대 기대</li> <li>일본 엔화 스테이블코인 기업 JPYC와 한-일 스테이블코인 공동 연구 진행</li> </ul>
다날	064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2019년 페이코인 사업 통해 인프라 환경 구축한 기업. 스테이블코인 TF 운영 통해 사업 추진</li> <li>페이프로토콜, 작년 6월 마스터카드 네트워크 통해 스테이블코인 결제 가능 인프라</li> </ul>
헥토파이낸셜	2343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블록체인 보안 업체 하이파이브랩과 스테이블코인 지급 결제 시스템 기술 제휴 MOU 체결</li> <li>국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와 지급 결제 및 유통 분야에서 제휴 논의 중</li> </ul>

자료: 하나증권

## 트럼프 원자력

### K-수출, 나아 원자력

#### check Point

- AI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높은 안정성, 탄소 배출 제로, 높은 에너지 밀도로 원자력 발전 부각
- 트럼프 대통령의 원자력 행정명령 서명 및 하원 청문회 통한 원자력 투자·규제 혁신 의지 피력
-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한전은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위한 JV 설립
- 체코 두코바니와 신규 원전 계약 체결해 유럽 내 원전 수출 확대 기대감 유효

#### ✓ 정의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란 화석 연료가 아닌 우라늄을 원료로 발전한다.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 원자핵이 중성자를 흡수하면 원자핵이 쪼개지면서 에너지와 중성자 2~3개가 발생한다. 이때 발생한 중성자가 또 다른 원자핵에 흡수되면서 연쇄적인 핵분열로 생성된 막대한 에너지로 전기를 만든다. 원자력 발전소는 건설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형 원전'과 '소형모듈원전(SMR)'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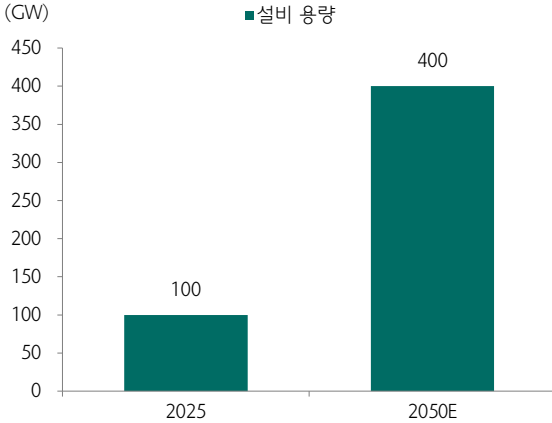
#### ✓ 현황

AI 데이터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가 확대되면서 원전이 부각받았다. AI 데이터센터는 2023년 기준 미국 전력 수요의 4.4%를 차지했고, 2028년 6.7~12%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AI 데이터센터에서 원전은 필수적인 발전원이다. 1) 24시간 가동 가능한 안정성, 2) 탄소 배출 제로, 3) 높은 에너지 밀도 등의 이유로 AI 데이터센터 성장에 원전이 필수적이다.

미중 패권 경쟁이 AI에서 결정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원활한 전력 공급을 위해 지난해 5월 원자력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원자력 에너지 르네상스를 목표로 100GW 규모의 미국 원전 설비 용량을 2050년까지 400GW로 4배 확대, 원자력위원회(NRC) 개혁으로 18개월 안에 원자로 면허 승인 등 내용을 포함했다. 지난 1월 7일 미국 하원 청문회에서 원자력을 주제로 청문회를 개최해 원전 인허가, 규제 완화, 공급망 복원 등 적극적인 투자 지원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해 1월 한전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적재산권 소송이 종결됐고 글로벌 원전 시장 진출 위해 JV를 설립했다.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기술과 시공 기술을 가진 한국 기업이 협력해 글로벌 수주 확보전을 예고했다. 그 외에도 지난해 6월 한수원과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 간 신규 원전 계약을 체결했다. UAE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6년 만의 대형 원전 수출로 두코바니 원전 계약 기반으로 유럽 내 사업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도 지난해 11월 튀르키예와 신규 원전 사업 개발 추진 공식화, 한전-UAE와 원전 협력 파트너십 체결 등 해외 원전 수출 기대감이 확대됐다.

### 미국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



자료: whitehouse.gov, 하나증권

### 한수원·한전-웨스팅하우스 합의한 원전 수주 지역



주: 회색(한수원·한전 신규 수주 활동 가능 국가), 검정색(한수원·한전 신규 수주 활동 불가능 국가)

자료: 연합뉴스, 하나증권

### 원자력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두산에너지빌리티	034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케일파워, X-에너지, 아마존, 웨스팅하우스, 페르미아메리카 등 미국 SMR, 대형 원전 기업과 협력</li> <li>■ 원전 주기기 제작 기술, SMR 제조 파트너, 계측제어계통 등 사업 영역</li> </ul>
현대건설	0007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홀텍 인터내셔널, 웨스팅하우스, 페르미 아메리카 등미국 주요 원전 업체들과 협력</li> <li>■ 원전 시공 역량 기반으로 국내 원전의 63%를 시공</li> </ul>
한국전력	0157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25년 웨스팅하우스와 JV 설립 통해 글로벌 원전 시장 공동 진출 합의</li> <li>■ 팀코리아의 지휘자 역할로 설계(한전기술), 제작(두산), 시공(현대건설 등) 총괄 지휘해 원전 건설 관리</li> </ul>
한전기술	0526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뉴스케일파워, X-에너지 등 미국 SMR 기업과 SMR 공동 설계 및 프로젝트 진행</li> <li>■ 원자력발전소 종합설계와 원자로계통설계 기술을 모두 보유한 국내 유일 발전소 설계 전문 회사</li> </ul>
한전KPS	05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비 및 유지보수 기업으로 웨스팅하우스, 컴벨, 뉴스케일파워 등 미국 원전 관련 기업과 협력</li> <li>■ 원자로 냉각재 펌프 정비 기술, 가동 중 검사, 수명 연장 및 설비 개선 등 사업 영위에 노후화된 원전 증가에 따른 정비/유지 보수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 기대</li> </ul>

자료: 하나증권

## 원자재 금

### 확장적 재정과 통화 완화 환경 속 포트폴리오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 자산, 금

#### check Point

- 글로벌 유동성 확대와 주요국 통화 완화 기조 속에서 금 가격의 단기 조정 이후 상승 지속 여부 주목
- 중앙은행의 구조적 금 순매수 기조와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이 중장기 금 수요를 안정적으로 지지
- 재정 적자 확대, 실질금리 하락, 달러 약세 환경이 금의 안전자산·인플레이션 헤지 수요 강화
- 지정학적 리스크 및 정책 불확실성 확대 시 금 가격 추가 상승 여지 존재하나 단기 변동성 확대 가능성 유의

#### ✓ 정의

금은 안전자산이자 산업·투자 수요가 결합된 대표적인 귀금속으로, 역사적으로 화폐·준비자산으로 사용되며 인플레이션 및 금융시장 변동성 국면에서 가치 저장 수단 역할을 수행한다. 전기전도성과 내식성이 뛰어나 반도체, 커패시터, 고급 전자부품, 의료·광학 장비 등에 필수 소재로 사용되며, 중앙은행·ETF·보석 수요 등이 가격을 좌우한다. 채굴 공급이 제한적인 데다 개발·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여서 공급 탄력성이 낮고, 이에 따라 글로벌 통화·금리·지정학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전통적 리스크 헤지 자산으로 평가된다

#### ✓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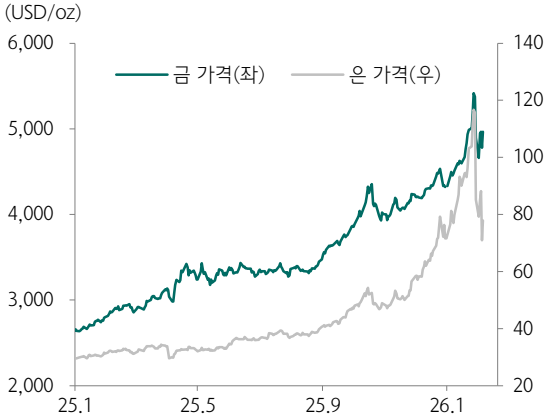
금 가격은 2024~2025년을 거치며 유동성 확대와 지정학적 불확실성 심화 속에서 사상 최고가 흐름을 이어왔으나, 올해 초 차기 미 연준 의장 인선 이슈와 단기 긴축 우려가 맞물리며 과열 해소 국면에 진입했다.

다만 연준의 통화정책 기조가 여전히 완화 국면에 머물러 있고, 실질금리 하락 기대와 달러 약세 가능성, 미 재정 불안 및 글로벌 정책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금의 안전자산·인플레이션 헤지 수요는 구조적으로 유효한 상황이다.

수요 측면에서는 중앙은행과 투자 수요가 금 가격 상승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외환보유고 다변화 전략의 일환으로 금 매입을 확대해왔으며, 최근에는 장신구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골드바·코인·ETF 등 투자 수요가 이를 상쇄하며 전체 금 수요를 견인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정부 부채 증가, 금융 억압 우려는 미 국채를 대체하는 자산으로서 금의 전략적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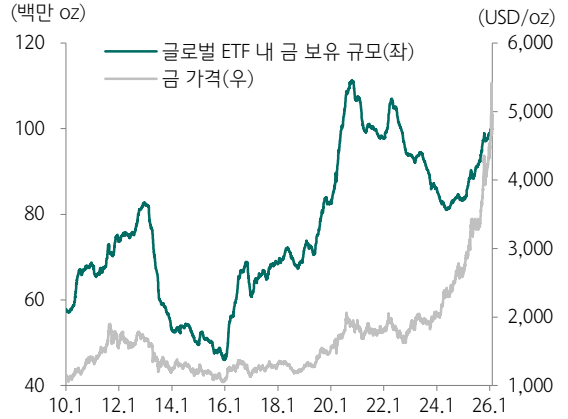
공급 측면에서는 신규 광산 개발의 제한과 환경 규제, 채굴 비용 상승으로 공급 증가 속도가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단기 가격 변동성은 존재하나, 중장기적으로는 수요 우위 구조가 유지되며 금 가격의 하방 경직성이 강화되고 있다. 2026년 금 시장은 유동성 환경 개선과 중앙은행 매입 지속을 배경으로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인 반면,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시 추가 상승 여지가 열려 있는 구조로 평가된다.

## 금, 은 가격 추이



주: 2026.2.6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글로벌 ETF 내 금 보유 규모



주: 2026.2.6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금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고려아연	010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비철금속 제련업체로 금, 은, 아연 등을 생산·판매하며 금 사업이 매출 일부 비중을 차지</li> <li>▪ 금 가격 상승 시 금과 비철금속 실적 동반 개선 기대</li> </ul>
아이티센글로벌	124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67.25%의 지분을 보유한 한국금거래소, 금 가격 상승에 힘입어 호실적 기록</li> <li>▪ 한국금거래소의 분기 금 거래량 25년 3분기 기준 10톤을 넘어서며 거래 규모 확대</li> </ul>
풍산	103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로 아연, 납 등 비철금속을 취급하는 기업이며, 금·은 가격 움직임의 간접 수혜 가능</li> <li>▪ 귀금속 가격 상승 시 메탈 스프레드 및 부산물 수익성 개선 효과 반영</li> </ul>
ACE KRX금현물 ETF	4110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금거래소 금 현물 가격을 기초지수로 하여 금 현물 가격 움직임을 그대로 추종하는 ETF</li> <li>▪ 금 가격 상승 시 안전자산 수요 확대에 따른 투자 수단으로 부각되며 순자산 규모 급증세 지속</li> </ul>

자료: 하나증권

## 원자재 구리

### AI-에너지 전환 시대, 구조적 공급부족 속 구리의 전략적 가치 부각

#### check Point

- AI 데이터센터·전력망·전기차 중심 비전통 수요 확대, 구리 수요 구조적 성장 지속
- Benchmark TC/RC 0달러 합의로 공급자 우위 구조가 강화되며 신규 공급 유인가격 상향 고착화
- 광산 개발 지연·환경 규제에 따른 공급 제약 지속으로 장기 공급 대응력 한계 부각
- 투기적 자금 유입 이후 차익실현 압력 확대, 단기 가격 변동성 국면 진입 여부 주목

#### ✓ 정의

구리는 ‘닥터 코퍼(Dr. Copper)’로 불릴 만큼 경기 민감도가 높은 비철금속으로,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이 우수해 전력 케이블, 변압기, 모터, 배선 등 전력 인프라 전반에 폭넓게 활용된다. 전기차,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확충 등 탈탄소·전동화 과정의 핵심 소재로 수요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대형 광산의 개발 리드타임과 환경·정책 규제로 공급 확대는 제약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는 글로벌 제조업·투자 사이클을 반영하는 경기 지표이자 에너지 전환 인프라 구축의 필수 소재로서 전략적 원자재 위상이 강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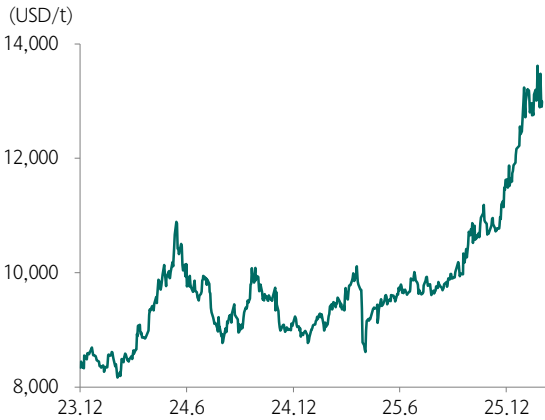
#### ✓ 현황

구리 가격은 2025년 하반기 이후 공급 제약과 전기차·재생에너지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상승 요인으로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 LME 전기동 가격은 2025년 말 톤당 12,000달러를 상회했고, 2026년 1월 중국발 투기적 매수세가 유입되며 장중 한때 14,000달러대를 돌파해 역사적 고점을 기록했다. 그러나 기록적 랠리를 주도했던 투기적 자금 청산과 차익실현 압력이 맞물리면서 현재 단기 조정 국면이 나타나고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구조적 제약이 지속되고 있다. 2024년 코브레 파나마 광산 폐쇄, 2025년 그라스버그 광산 사고 등 대형 공급 차질로 글로벌 공급 전망이 하향 조정됐으며, 2026년 Benchmark 제련수수료(TC/RC)는 톤당 0달러로 합의되며 제련소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된 상태다. 이는 광산업체 협상력이 크게 강화된 공급자 우위 시장을 의미하며, 신규 공급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구리 유인가격은 톤당 10,000~12,000달러 수준으로 상향 고착화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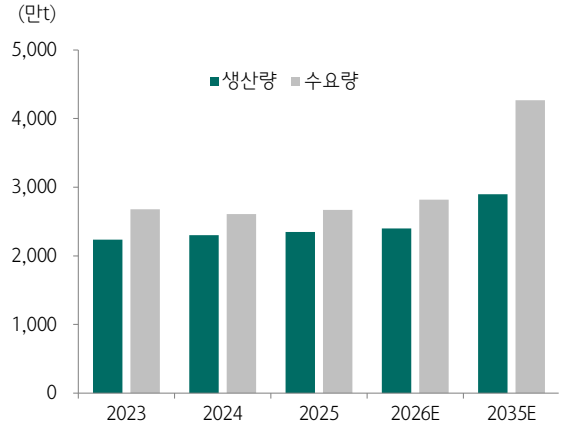
수요 측면에서는 에너지 전환과 AI 인프라 투자가 구리 소비를 견인하고 있다. 글로벌 구리 수요는 2025년 약 2,670만 톤에서 2030년 3,000만 톤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 중 데이터센터·전기차·신재생에너지 등 비전통 수요는 2025년 약 650만 톤에서 2030년 1,400만 톤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데이터센터 관련 구리 수요는 전체 비중은 1~2% 수준에 불과하지만, 2025년 구리 수요 증가분의 약 25% 이상을 차지하며 가격 결정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 LME 구리 가격 추이



주: 2026.2.6일 종가 기준  
자료: Bloomberg, 하나증권

### 글로벌 구리 생산·수요량



자료: ICSC, 하나증권

### 구리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고려아연	0101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리 정련·전해동 및 구리박 생산 기술을 보유. 전기차 배터리·전자 소재 수요 증가의 구조적 수혜 기대</li> <li>국내 최대 비철금속 제련사로서 구리 가격 상승 시 사업 수익성 개선 기대</li> </ul>
풍산	1031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구리·동합금 소재를 생산하는 비철금속 기업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 수혜</li> <li>구리 가격 강세 국면에서 소재 판가 인상 효과로 수익성 개선 기대</li> </ul>
일진전기	1035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압·전력망용 케이블 및 전력설비 핵심 장비 사업을 영위하며 구리 도체 수요 증가의 수혜주</li> <li>북미·중동 전력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른 주주 및 실적 개선 기대</li> </ul>
LS	0062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선·전력기기 계열사를 통해 구리 사용 비중이 높은 전력 인프라 밸류체인 보유</li> <li>AI 데이터센터·전력망 투자 확대 시 구리 수요 증가의 직접적 수혜 기대</li> </ul>
프리포트 맥모란	FCX.U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최대 구리 생산 업체, 전세계 8.5% 구리 생산</li> <li>구리의 매출 비중이 75% 이상으로 구리 가격에 대한 주가 민감도 높아</li> </ul>

자료: 하나증권

## 원자재 리튬

### ESS 성장과 중국발 공급 제약, 리튬 가격의 바닥 탈출 신호

#### check Point

- 리튬 가격, 2025년 바닥 형성 이후 2026년 kg당 15~20달러 회복 흐름 지속 여부 주목
- AI 데이터센터·전력망 투자 확대에 ESS 중심 리튬 수요 고성장 지속 여부 관건
- 중국 반내권 정책에 따른 광산 증설 제한으로 공급 탄력성 약화, 가격 하단 지지 구조 강화
- EV 성장 둔화 속 ESS 비중 확대가 리튬 수요 구조 재편을 가속화하는 핵심 변수

#### ✓ 정의

리튬은 가장 가벼운 알칼리 금속으로, 높은 에너지 밀도와 충방전 효율을 바탕으로 이차전지의 핵심 원료로 사용되는 전략 금속이다. 리튬 산업은 광산에서 리튬 원광(염호·광석)을 채굴하는 상류(Upstream), 이를 탄산리튬·수산화리튬 등 배터리용 화합물로 정제하는 중류(Midstream), 전기차(EV), 에너지저장장치(ESS), 소형 IT기기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하류(Downstream)로 구성된다. 특히 전기차와 ESS 확산에 따라 리튬은 에너지 전환 시대의 핵심 소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술 변화와 정책 환경에 따라 수급과 가격 변동성이 큰 산업적 특성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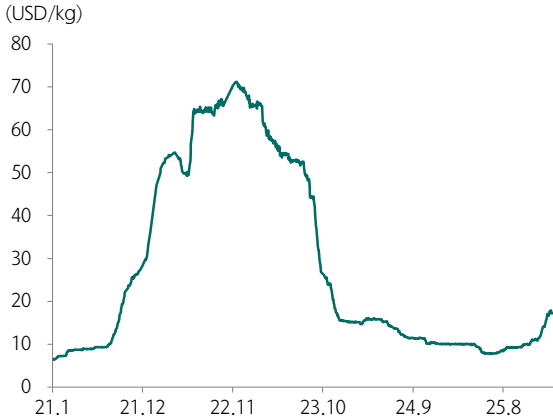
#### ✓ 현황

글로벌 리튬 시장은 2022년 고점 이후 전기차 수요 둔화와 공급 과잉 우려로 장기간 가격 조정을 거쳤으나, 2025년 하반기를 기점으로 바닥을 확인하고 2026년 점진적 회복 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탄산리튬 가격은 2025년 중반 kg당 8달러 수준까지 하락한 이후 중국 반내권 정책에 따른 광산 가동 제한, 낮은 재고 수준, ESS 수요 확대 기대가 맞물리며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전기차 성장 둔화에도 불구하고 ESS(Energy Storage System)가 리튬 수요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글로벌 AI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와 전력망 안정화 수요로 ESS 시장은 2025~2035년 연평균 15~30% 성장이 전망되며, LFP 배터리 채택 확대에 따라 ESS용 리튬 수요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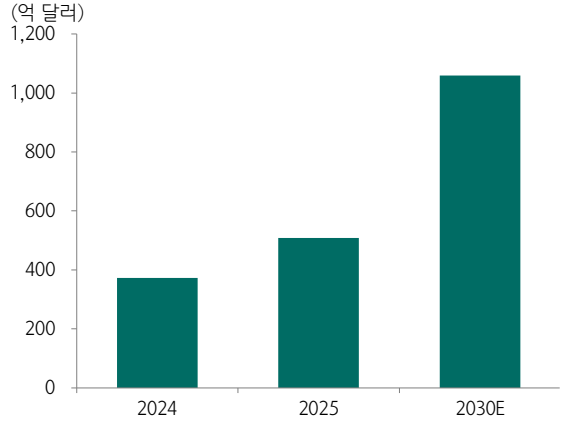
공급 측면에서는 중국 정부의 반내권 정책으로 신규 증설과 공격적인 증산이 제한되고 있으며, 주요 광산 재개 지연 가능성도 공급 회복 속도를 제약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6년 리튬 시장은 수급 불균형이 점진적으로 완화되면서 가격은 급등보다는 kg당 20달러 수준을 향한 완만한 회복 흐름이 예상된다. 중장기적으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 상용화와 중국 광산 정상화 여부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리튬 가격 추이



주: 2026.2.6일 종가 기준  
자료: 한국광해광업공단, 하나증권

##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시장 규모



자료: Marketsandmarkets, 하나증권

## 리튬 관련 기업

종목	코드	관련 내용
포스코홀딩스	0054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아르헨티나 염호 및 국내·해외 광산 투자를 통해 리튬 원재료부터 정제까지 밸류체인 내재화 추진</li> <li>이차전지 소재 사업을 그룹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하며 중장기 리튬 공급 안정성 확보 전략</li> </ul>
포스코퓨처엠	0036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양극재·음극재 생산 기업으로 그룹 내 리튬 원료를 활용한 배터리 소재 사업 확대</li> <li>글로벌 완성차·배터리 업체와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 중장기 성장 가시성 확보</li> </ul>
LG화학	0519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배터리용 양극재 및 리튬 정제 사업을 통해 리튬 밸류체인 상·중류 영역에 참여</li> <li>전기차 및 ESS용 배터리 소재 수요 확대에 따라 고부가 소재 중심 포트폴리오 전환 중</li> </ul>
에코프로비엠	2475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하이니켈 양극재 제조 기업으로 리튬을 핵심 원재료로 사용</li> <li>글로벌 배터리 고객사 확보와 함께 EV-ESS 수요 회복 시 실적 레버리지 기대</li> </ul>
엔켐	34837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해액 제조 기업으로 리튬염을 기반으로 한 배터리 핵심 소재 공급</li> <li>북미·유럽 생산 거점 확대를 통해 글로벌 배터리 고객사 대응력 강화</li> </ul>

자료: 하나증권

## 2026년 하나증권 산업 테마 가이드

# 찾아보기 1. 테마별

구분	테마	종목코드	종목명	페이지
E	ESS	373220	LG에너지솔루션	25
	ESS	096770	SK이노베이션	25
	ESS	475150	SK이터닉스	25
	ESS	006400	삼성SDI	25
	ESS	178320	서진시스템	25
	ESS	416180	신성에스티	25
	ESS	413390	엠오티	25
	ESS	054210	이랜텍	25
	ESS	107640	한중엔시에스	25
F	Fandom 소비	037270	YG PLUS	33
	Fandom 소비	473980	노머스	33
	Fandom 소비	376300	디어유	33
	Fandom 소비	003230	삼양식품	33
	Fandom 소비	352820	하이브	33
	Fandom 소비	069960	현대백화점	33
T	Trendy	001040	CJ	35
	Trendy	036620	감성코퍼레이션	35
	Trendy	063170	서울옥션	35
	Trendy	481070	에이유브랜즈	35
	Trendy	278470	에이피알	35
	Trendy	194370	제이에스코퍼레이션	35
	Trendy	088790	진도	35
	Trendy	102370	케이옥션	35
	Trendy	189980	홍국에프엔비	35
G	구리	006260	LS	51
	구리	010130	고려아연	51
	구리	103590	일진전기	51
	구리	103140	풍산	51
	구리	FCX.US	프리포트 맥모란	51
	금	411060	ACE KRX금연물 ETF	49
	금	010130	고려아연	49
	금	124500	아이티센글로벌	49
	금	103140	풍산	49
	기판	011070	LG이노텍	21
	기판	353200	대덕전자	21
	기판	009150	삼성전기	21
	기판	222800	심텍	21
	기판	007660	이수페타시스	21
	기판	007810	코리아써키트	21
기판	356860	티엘비	21	
R	로봇 부품	060720	KH비텍	17
	로봇 부품	108490	로보티즈	17
	로봇 부품	389500	에스비비테크	17

구분	테마	종목코드	종목명	페이지
	로봇 부품	058610	에스피지	17
	로봇 부품	101170	우림피티에스	17
	로봇 부품	160190	하이젠알앤엠	17
	리튬	051910	LG화학	53
	리튬	247540	에코프로비엠	53
	리튬	348370	엔캠	53
	리튬	003670	포스코퓨처엠	53
	리튬	005490	포스코홀딩스	53
	B	반도체/HBM	403870	HPSP
반도체/HBM		095340	ISC	19
반도체/HBM		000660	SK하이닉스	19
반도체/HBM		348210	넥스틴	19
반도체/HBM		003160	디아이	19
반도체/HBM		058470	리노공업	19
반도체/HBM		005930	삼성전자	19
반도체/HBM		168360	팜트론	19
반도체/HBM		319660	피에스케이	19
반도체/HBM		042700	한미반도체	19
반도체/HBM		489790	한화비전	19
발사체/발사 서비스		082920	비츠로셀	9
발사체/발사 서비스		042370	비츠로테크	9
발사체/발사 서비스		462350	이노스페이스	9
발사체/발사 서비스		274090	켄코에어로스페이스	9
방산	001500	그린광학	29	
방산	321370	센서뷰	29	
방산	295310	에이치브이엠	29	
방산	289930	웨이비스	29	
방산	361390	제노코	29	
A	산업용 로봇(물류)	459510	나우로보틱스	11
	산업용 로봇(물류)	056190	에스에프에이	11
	산업용 로봇(물류)	007820	에스엠코어	11
	산업용 로봇(물류)	388720	유일로보틱스	11
	산업용 로봇(물류)	282880	코윈테크	11
	산업용 로봇(물류)	117730	티로보틱스	11
	산업용 로봇(물류)	319400	현대무백스	11
	산업재편	005490	POSCO홀딩스	39
	산업재편	011780	금호석유	39
	산업재편	006650	대한유화	39
	산업재편	011170	롯데케미칼	39
	산업재편	001430	세아베스틸지주	39
	산업재편	004020	현대제철	39
	수술용 로봇	098460	고영	13
	수술용 로봇	491000	리브스메드	13

구분	테마	종목코드	종목명	페이지
	수술용 로봇	060280	큐렉소	13
	스테인블코인	064260	다날	45
	스테인블코인	124500	아이티센글로벌	45
	스테인블코인	377300	카카오페이	45
	스테인블코인	234340	핵토파이낸셜	45
○	원자력	034020	두산에너빌리티	47
	원자력	015760	한국전력	47
	원자력	051600	한전KPS	47
	원자력	052690	한전기술	47
	원자력	000720	현대건설	47
	위성운영 및 서비스	211270	AP위성	5
	위성운영 및 서비스	474170	루미르	5
	위성운영 및 서비스	099320	세트랙아이	5
	위성운영 및 서비스	189300	인텔리안테크	5
	위성운영 및 서비스	451760	컨텍	5
	인공위성	211270	AP위성	3
	인공위성	478340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3
	인공위성	474170	루미르	3
	인공위성	099320	세트랙아이	3
	인공위성	361390	제노코	3
	인공지능(AI)	007660	SK하이닉스	37
	인공지능(AI)	200710	가온칩스	37
	인공지능(AI)	394280	삼성전기	37
	인공지능(AI)	005930	삼성전자	37
	인공지능(AI)	445090	오픈엠티테크놀로지	37
	인공지능(AI)	399720	이수페타시스	37
ㅈ	정유	078930	GS	43
	정유	096770	SK이노베이션	43
	정유	010950	S-Oil	43
	중국소비	499790	GS피앤엘	31
	중국소비	032350	롯데관광개발	31
	중국소비	290650	엘앤씨바이오	31
	중국소비	034230	파라다이스	31
	중국소비	214450	파마리서치	31
	중국소비	042520	한스바이오메드	31
ㅋ	코스닥	095340	ISC	41
	코스닥	277810	레인보우로보틱스	41
	코스닥	141080	리가캠바이오	41
	코스닥	058470	리노공업	41
	코스닥	247540	에코프로비엠	41
	코스닥	240810	원익PS	41
ㅌ	특수소재	001430	세아베스틸지주	7
	특수소재	347700	스피어	7

구분	테마	종목코드	종목명	페이지
	특수소재	354320	알멕	7
	특수소재	295310	에이치브이엠	7
	특수소재	272290	이녹스첨단소재	7
ㅍ	폴더블	060720	KH바텍	23
	폴더블	178920	P첨단소재	23
	폴더블	213420	덕산네오룩스	23
	폴더블	290550	디케이티	23
	폴더블	090460	비에이치	23
	폴더블	272290	이녹스첨단소재	23
	폴더블	120110	코오롱인더	23
	폴더블	441270	파인애플	23
ㅎ	휴머노이드 로봇	348340	뉴로메카	15
	휴머노이드 로봇	277810	레인보우로보틱스	15
	휴머노이드 로봇	108490	로보티즈	15
	휴머노이드 로봇	437730	삼연	15
	휴머노이드 로봇	389500	에스비비테크	15
	휴머노이드 로봇	058610	에스피지	15
	휴머노이드 로봇	199430	케이엔알시스템	15
	휴머노이드 로봇	160190	하이젠알앤엠	15
	휴머노이드 로봇	012330	현대모비스	15
	히토류	229640	LS에코에너지	27
	히토류	비상장	LS에코첨단소재	27
	히토류	010130	고려아연	27
	히토류	285490	노바텍	27
	히토류	비상장	성림첨단산업	27
	히토류	127120	제이에스링크	27
	히토류	047050	포스코인더내셔널	27

## 2026년 하나증권 산업 테마 가이드 찾아보기 2. 종목별

구분	종목명	종목코드	테마	페이지
A	ACE KRX금현물 ETF	411060	금	49
	AP위성	211270	인공위성	3
	AP위성	211270	위성운영 및 서비스	5
C	CJ	001040	Trendy	35
G	GS	078930	정유	43
	GS피앤엘	499790	중국소비	31
H	HPSP	403870	반도체/HBM	19
I	ISC	095340	코스닥	41
	ISC	095340	반도체/HBM	19
K	KH비텍	060720	로봇 부품	17
	KH비텍	060720	폴더블	23
L	LG에너지솔루션	373220	ESS	25
	LG이노텍	011070	기판	21
	LG화학	051910	리튬	53
	LS	006260	구리	51
	LS에코에너지	229640	희토류	27
	LS에코첨단소재	비상장	희토류	27
P	P첨단소재	178920	폴더블	23
	POSCO홀딩스	005490	산업재편	39
S	SK이노베이션	096770	정유	43
	SK이노베이션	096770	ESS	25
	SK이티닉스	475150	ESS	25
	SK하이닉스	007660	인공지능(AI)	37
	SK하이닉스	000660	반도체/HBM	19
	S-Oil	010950	정유	43
Y	YG PLUS	037270	Fandom 소비	33
기	가온칩스	200710	인공지능(AI)	37
	감성코퍼레이션	036620	Trendy	35
	고려아연	010130	금	49
	고려아연	010130	구리	51
	고려아연	010130	희토류	27
	고영	098460	수술용 로봇	13
	그린광학	0015G0	방산	29
	금호석유	011780	산업재편	39
L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478340	인공위성	3
	나우로보틱스	459510	산업용 로봇(물류)	11
	넥스틴	348210	반도체/HBM	19
	노머스	473980	Fandom 소비	33
	노비텍	285490	희토류	27
	뉴로메카	348340	휴머노이드 로봇	15
E	다날	064260	스테이بل코인	45
	대덕전자	353200	기판	21

구분	종목명	종목코드	테마	페이지	
E	대한유화	006650	산업재편	39	
	덕산네오룩스	213420	폴더블	23	
	두산에너빌리티	034020	원자력	47	
	디아이	003160	반도체/HBM	19	
	디어유	376300	Fandom 소비	33	
E	디케이티	290550	폴더블	23	
	레인보우로보틱스	277810	코스닥	41	
	레인보우로보틱스	277810	휴머노이드 로봇	15	
	로보티즈	108490	휴머노이드 로봇	15	
	로보티즈	108490	로봇 부품	17	
	롯데관광개발	032350	중국소비	31	
	롯데케미칼	011170	산업재편	39	
	루미르	474170	인공위성	3	
	루미르	474170	위성운영 및 서비스	5	
	리가캠바이오	141080	코스닥	41	
E	리노공업	058470	코스닥	41	
	리노공업	058470	반도체/HBM	19	
	리브스메드	491000	수술용 로봇	13	
E	비에이치	090460	폴더블	23	
	비츠로셀	082920	발사체/발사 서비스	9	
	비츠로테크	042370	발사체/발사 서비스	9	
S	삼성SDI	006400	ESS	25	
	삼성전기	394280	인공지능(AI)	37	
	삼성전기	009150	기판	21	
	삼성전자	005930	인공지능(AI)	37	
	삼성전자	005930	반도체/HBM	19	
	삼양식품	003230	Fandom 소비	33	
	삼현	437730	휴머노이드 로봇	15	
	서울옥션	063170	Trendy	35	
	서진시스템	178320	ESS	25	
	성림첨단산업	비상장	희토류	27	
S	세아베스틸지주	001430	산업재편	39	
	세아베스틸지주	001430	특수소재	7	
	센서뷰	321370	방산	29	
	스피어	347700	특수소재	7	
	신성에스티	416180	ESS	25	
	심텍	222800	기판	21	
	셋트렉아이	099320	인공위성	3	
	셋트렉아이	099320	위성운영 및 서비스	5	
	O	아이티센글로벌	124500	스테이블코인	45
		아이티센글로벌	124500	금	49
알맥		354320	특수소재	7	

구분	종목명	종목코드	테마	페이지
	에스비비테크	389500	휴머노이드 로봇	15
	에스비비테크	389500	로봇 부품	17
	에스에프에이	056190	산업용 로봇(물류)	11
	에스엠코어	007820	산업용 로봇(물류)	11
	에스피지	058610	휴머노이드 로봇	15
	에스피지	058610	로봇 부품	17
	에이유브랜즈	481070	Trendy	35
	에이치브이엠	295310	특수소재	7
	에이치브이엠	295310	방산	29
	에이피알	278470	Trendy	35
	에코프로비엠	247540	코스닥	41
	에코프로비엠	247540	리튬	53
	엔켐	348370	리튬	53
	엘앤씨바이오	290650	중국소비	31
	엠오티	413390	ESS	25
	오픈엠티테크놀로지	445090	인공지능(AI)	37
	우림피티에스	101170	로봇 부품	17
	원익PS	240810	코스닥	41
	웨이비스	289930	방산	29
	유일로보틱스	388720	산업용 로봇(물류)	11
	이노스페이스	462350	발사체/발사 서비스	9
	이녹스첨단소재	272290	특수소재	7
	이녹스첨단소재	272290	폴더블	23
	이랜텍	054210	ESS	25
	이수퍼타시스	399720	인공지능(AI)	37
	이수퍼타시스	007660	기판	21
	인텔리안테크	189300	위성운영 및 서비스	5
	일진전기	103590	구리	51
ㄹ	제노코	361390	인공위성	3
	제노코	361390	방산	29
	제이에스링크	127120	희토류	27
	제이에스코퍼레이션	194370	Trendy	35
	진도	088790	Trendy	35
ㄷ	카카오페이	377300	스태이블코인	45
	컨텍	451760	위성운영 및 서비스	5
	케이엔알시스템	199430	휴머노이드 로봇	15
	케이옥션	102370	Trendy	35
	켄코아에어로스페이스	274090	발사체/발사 서비스	9
	코리아써킷	007810	기판	21
	코오롱인더	120110	폴더블	23
	코원테크	282880	산업용 로봇(물류)	11
	큐렉소	060280	수술용 로봇	13
ㄷ	티로보틱스	117730	산업용 로봇(물류)	11
	티엘비	356860	기판	21
ㄹ	파라다이스	034230	중국소비	31
	파마리서치	214450	중국소비	31

구분	종목명	종목코드	테마	페이지
	파인애플	441270	폴더블	23
	펄트론	168360	반도체/HBM	19
	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	희토류	27
	포스코퓨처엠	003670	리튬	53
	포스코홀딩스	005490	리튬	53
	풍산	103140	금	49
	풍산	103140	구리	51
	프리포트 맥모란	FCX.US	구리	51
	피에스케이	319660	반도체/HBM	19
ㅎ	하이브	352820	Fandom 소비	33
	하이젠알앤엠	160190	휴머노이드 로봇	15
	하이젠알앤엠	160190	로봇 부품	17
	한국전력	015760	원자력	47
	한미반도체	042700	반도체/HBM	19
	한스바이오메드	042520	중국소비	31
	한전KPS	051600	원자력	47
	한전기술	052690	원자력	47
	한중엔시에스	107640	ESS	25
	한화비전	489790	반도체/HBM	19
	혁토파이낸셜	234340	스태이블코인	45
	현대건설	000720	원자력	47
	현대모비스	012330	휴머노이드 로봇	15
	현대무백스	319400	산업용 로봇(물류)	11
	현대백화점	069960	Fandom 소비	33
	현대제철	004020	산업재편	39
	흥국에프엔비	189980	Trendy	35

## Analyst

	성명	직책	담당분야	사내번호	E-mail
센터장	황승택	센터장/전무	리서치센터 총괄	7519	sthwang

기업분석실	최정욱	실장/상무	기업분석실 총괄, 은행/카드/지주	3643	cuchoi
	한유건	팀장	미래산업 총괄	7504	hyg0619
	권태우	연구위원	미래산업	7507	tkwon
미래산업팀	박찬솔	연구위원	미래산업	7719	chansolpark
	손호성	연구원	미래산업 RA	8184	hss93
	윤채리	연구원	미래산업 RA	3243	yooncherry

글로벌투자분석실	이재만	실장	글로벌투자분석실 총괄, 국내/선진국투자전략	7547	duke7594
	김두언	팀장	채널전략팀 총괄	7509	kimdooun
	임승미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7786	seungmi_lim
	강윤형	선임연구원	포트폴리오	8024	kangyh
	박준우	선임연구원	시장대리인/포트폴리오 RA	8116	junwoo
	안범수	연구원	국내외 주식 시장 RA	3224	beomsooahn
	김민근	연구원	샴프로 RA	8569	minkeunkim

### Compliance Notice

- 본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무단 복제 및 배포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 이나,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